

2 2023 VOL. 320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 한인뉴스





# 2023년 계묘년 새해 福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KB Bukopin Bank 은행장 이우열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교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KB Bukopin Bank 임직원 일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 신뢰와 사랑받는 은행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여신, 수신, 외환, 환전, 송금 등에 대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담 한국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업무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고객만족을 최우선 지향점으로 삼고 사소한  
업무 하나 하나에도 모자람 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교민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3년 새해 고객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KB Bukopin Bank 은행장 이우열 -



- KB Bukopin 은행은 2022.6월 Global 신용평가회사 Fitch 및 인도네시아 신용평가회사 Pefindo로부터 인도네시아 기준 최우량 등급인“AAA”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영업점 창구 방문, 콜센터 또는 아래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대표 영업점 주소 (KB Bukopin 은행 본점 소재)  
KB Bukopin Head Office G Floor,  
JL. MT Haryono Kav. 50-51, Jakarta Selatan Indonesia 12770

담당직원 및 연락처  
정철민 본부장 (코리아데스크 : 0821 1463 0602)  
Ms.Siska Andini (본점 영업부 팀장 : 0819 0505 4922)  
콜센터 (상담원 연결 : 14005)



# Car of The Year 2022

## Hyundai STARGAZER.



**2022 올해의 차 현대 스타게이저를 지금 만나보세요**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한국인 금융상담] Sunindo KB Finance : +62 813-1696-2061 왓츠앱 문의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2023



# 제5회 적도문학상 공모전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한국문학 단체인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에서 우리 문학의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갈 우수한 신인작가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3년 제5회 적도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응모 대상

미등단 신인으로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거주하는 성인

## 부문

시, 소설, 수필(전 부문 자유주제)

## 응모 방법

시(3편 이상), 수필 2편, 단편소설 1편

## 분량

- ◆ 시는 자유분량, 수필은 A4 기준 2매(글자 11p)
- ◆ 소설은 1만자 내외

## 공모기간 및 접수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 munhyup2022@outlook.com

## 특전

- ◆ 대상 수상자에게는 등단작가의 예우
- ◆ 당선작가 전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가입자격 부여

## 시상 내역

수상자 발표 2023년 5월 하순경, 시상식은 별도 공고  
※응모작에 따라 부문별 수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인원	상금
적도문학상 대상	1명	1천만 루피아
최우수상	3명	5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우수상	3명	3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장려상	3명	2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 주의사항

- ◆ 응모작은 반드시 미발표 창작물이어야 함
- ◆ 표절 및 저작권 시비가 있는 경우 당선취소 됨
- ◆ 응모작에는 별도의 용지에 주소 및 연락처 기재
- ◆ 당선작의 저작권은 작가와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공유

## 문의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62831 1513 8818, +62819 3117 3661





## 월간 한인뉴스 2 2023

###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제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박승우 (ACS Jakarta, G3)
- ◆ 김제니 (SIS P5) & 김조이 (SIS, K1)
- ◆ 임서호 (SPH Kemang, 1학년)
- ◆ 오제인 (ACS Jakarta, G8)
- & 오윤성 (ACS Jakarta, G12)

8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미리 보는 2024년 대선,  
총선 관전 포인트

11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사업 추진

12

2023 신년사 〈이상덕 대사〉

14

신년인사회

18

김재훈의 '세무 TALK'  
Natura와 Kenikmatan  
제공에 대한 정부령

20

코참, 〈상공인의 날〉 개최





# contents

2023. 2. 통권 320호

22

자유총연맹인도네시아 신년회

23

2023 신년사  
〈박재한, 이강현〉

24

김진표 국회의장, 동포와의  
만찬 간담회

21

김재훈의 ‘세무TALK’  
“2023년 세무 전망”

24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이야기 62

2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32

문법왕 〈민선희〉

36

[여기가 맛집!]  
Suji – Suan Cai Yu 〈황지영〉

39

설날 문화체험

40

〈한인뉴스〉에 바란다

42

[떠나야 보이는 것들]  
‘이제 와서’가 아닌 ‘지금이라도’  
〈손예리〉

44

[칼럼] 자카르타 한식당,  
경험공간으로의 진화 〈조연숙〉

48

[행복에세이]  
골프의 교훈 〈김준규〉

50

두 개의 시선 – 자바 전통 혼례  
〈헬렌 하르소노〉

52

새로울 결심 〈오제인〉

54

라스미 〈황영은〉

58

JIKS 소식

60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나?  
〈황다인〉

62

룸복한인회의 ‘K-Friends’

63

초코는 인형인가? 강아지인가?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18)  
분쟁 해결 방법(6)  
〈이승민〉

68

생활정보

## 미리보는 2024년 대선 · 총선 관전 포인트



논설위원 신성철

2023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들이 쟁결음을 시작했다. 대선 후보들이 텔레비전과 신문 등 언론은 물론 소셜미디어(SNS)에 노출을 늘리고, 여론조사기관이 대선후보의 당선가능성 등 조사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2024년 2월 14일 대선과 총선이 같은 날 개최되고,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주지사와 군수·시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대선·총선을 같은 날 치르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예산 절약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역사상 대선과 총선이 한 번에 실시되면서 ‘최대 규모’ ‘가장 복잡한 선거’로 기록됐고, 선거 종사자 270여 명이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7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 곳곳에 80만여 개의 투표소가 설치됐고 선거 종사자 700만여 명이 동원됐다. 투표 가능 유권자 1억 9,300만 명 중 80%가량이 투표에 참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선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실시되면서 선거결과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즉 높은 지지율을 보인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이 총선에서 높은 득표율을 낼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에서 의석 점유율 20% 이상 또는 총선 득표율 25% 이상 정당이나 정당연합만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 또 의회에서 다수의 정당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선거 이후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득표율 최소 4%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 같은 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등록을 앞두고 정당 간 합종연횡과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의 짝짓기에 따라 당락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2019년 대선에서 승리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후보는 자당인 투쟁민주당(PDIP)과 골까르(Golkar), 나스뎀(NasDem), 하누라(Hanura), PPP가 연합하여 55.0%의 득표율을 보였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는 자당인 그린드라(Gerindra)와 민주당(Demokrat), PKS, PAN이 연합해 44.50%를 득표했다. 2019년 총선에서는 9개 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총재가 이끄는 투쟁민주당, 이어 프라보워 수비안토 총재의 그린드라당, 골까르, 나스뎀, 민주당 등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1~5위를 차지한 반면, 이슬람 성향의 정당은 6~9위의 부진한 성적을 보였는데, 이 중 PKB가 가장 많은 원내 의석수를 차지했고 이어 PKS, PAN, PPP 순이다.



2023년 1월 현재 차기 대선에서 연합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정당그룹으로는 △나스탐당, 민주당, PKS 등이 한 그룹이고 △ 그린드라당, PKB △ 골까르당, PAN, PPP 등이 잠정적으로 손을 잡았다. 집권여당인 투쟁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9.5%를 획득했지만 20% 이상 의석수를 차지해 연합하지 않고 자력으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

### 유력 대선 후보의 장단점

유력 대선 후보를 살펴보면, 최근 지지율 1위를 보이며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후보는 간자르 뿌라노워 현 중부자바 주지사이다. 1968년생인 간자르는 중부자바주 까랑안야르 지역 출신으로 가자마다대학교(UGM)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도네시아민족학생운동(GMNI)에 참여하고, 1996년 투쟁민주당 전신인 PDI에 가입, 2004년 2009년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13년 중부자바 주지사에 선거에 당선됐다. 그는 차기 대선의 킹메이커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코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 노선도 유사해 대체로 온건한 무슬림들이 선호한다. 조코위와 비슷하게 대중적인 인기가 높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 세대로부터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당인 투쟁민주당 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대선 후보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메가와티의 친딸 뿌안 마하라니와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다.

뿌라보워 현 국방장관 겸 그린드라당 총재는 지난 2014년과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와 경쟁해 고배를 마신 경력이 있다. 그는 최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를 앞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1951년 태어난 뿌라보워는 1974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생활 대부분을 특전사령부(KOPASSUS)에서 보냈다. 1998년 민주화 운동 시위가 한참일 때, 특전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지만 이혼한 경력이 있는 명문가 출신이다. 그는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9년 대선에서 보수 무슬림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2019년 대선 직후 뿌라보워의 지지세력이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폭력시위가 이어져 한때 인도네시아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순위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1969년에 서부자바주 꾸닝안 지역 출신이다. 조부가 압두라흐만 바스웨단으로 독립운동가였고,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시절 공보부 차관을 맡았다. 아니스는 노던 일리노이대학교 정치학박사이다. 정치에 뛰어들기에 앞서 빠라마디나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1기 조코위 정부에서는 교육문화부 장관직을 수행했고,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됐다. 그는 이슬람식 교육을 강조하고 보수 이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 후보보다는 러닝메이트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Ganjar Pranowo



Anies Baswedan



Ridwan Kamil



Prabowo Subianto



Erick Thohir

### 주목할 만한 2024년 대선·총선 관전 포인트

한류가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 선거운동에서 활용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당시 투쟁민주당 소속 조코위 후보가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조코위는 중부자바주 솔로(수라카르타) 시장에서 자카르타 주지사가 되면서 일약 인도네시아 정치계에 스타가 되었고 대권까지 거머쥐게 된다. 이후 많은 후보들의 선거운동에는 K-Pop이 활용됐고, 송중기 등 한류스타를 패러디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한류가 어떻게 활용될지 흥미롭다.

최근 아니스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신수도 이전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아니스 후보는 신수도 이전 사업은 국민적 참여가 부족하다며 수도 이전 무용론을 펼쳐 2024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조코위 정부의 노선을 이어받을 간자르 후보와 보수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뿌라보위와 아니스 후보의 정책대결도 관전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신진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볼만하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조직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에릭 또히르 현 국영기업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축구협회(PSSI) 회장직에 야심을 품으며 정치적을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리드완 까밀 현 서부자바주 주지사가 골카르당이 주축이 된 정당연합인 인도네시아연합(KIB)에 합류했다. 또 임기 후반기임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의 두 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주지사와 시장에 출마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함께 민주화에 성공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치가 2024년 대선과 총선을 통해 더욱 젊어지고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끝)





##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로고 및 슬로건

###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사업 추진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우리 정부(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오랜 교류와 협력을 기념하고, 한-인니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양국을 오가는 각종 교류, 문화, 학술 행사 등 연간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발효를 시작으로, 중점 행사로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9월) △국제세미나(상반기) △K-POP 콘서트(상반기)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외 정치·외교, 군사·방산, 경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약 40여 건의 다양한 행사가 양국에서 연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는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함께 202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공식 로고 및 기념 슬로건을 선정했으며, 홍보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과 자카르타에 소재한 양국 대사관은 2022.11월 중 수교 50주년 기념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 접수된 총 266건의 작품 중 3건(로고 2건, 슬로건 1건)을 수상작으로 확정하였다.

로고 부문 최우수작은 숫자 50을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가루다\*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 한-인니 수교 50주년 및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상화하였다.

\* 가루다(Garuda)는 인도네시아 국장(national emblem)에 등장하는 동물로, 힌두교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의 새

슬로건 부문 최우수작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은 지난 50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 이번에 선정된 공식 로고 및 슬로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는 이번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통해 양국 관계가 ‘떠려야 떨 수 없는 친구’의 관계로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간 개최되는 기념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제공: 대사관)



2023년 신년사



Danau Kelimutu, Flores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새해를 맞아 우선 지면으로 부임 인사 올립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금년 수교 50주년을 전후하여 우리의 핵심 협력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우리 동포사회는 지난 백여 년간 숭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가장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동포사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발전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한인 사회 1세대부터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근년에 들어 우리의 필요성과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동남아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더 이상 우리 외교의 변방이 아닙니다. 특정국들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중 경쟁과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이제 동남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인구 2.7억의 대국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와의 수교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작년 한 해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 대통령님의 발리 G20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금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우리 진출 기업, 대사관이 합심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이상덕



## 신년인사회

2023년 1월 10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이상덕 신임대사는 대사관 직원, 한인단체 주요인사 및 각계 동포를 초청하여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덕 대사는 “부임을 앞두고 기다리는 5개월간 인도네시아 관련인사를 만나 인도네시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인도네시아한인 100년사>를 3일 만에 완독하면서 역동적인 인도네시아 동포사회 과거사와 진출기업에 대해 아는 데 이 한 권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고 특정국들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중 경쟁과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인도네시아와는 관계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인도네시아에 현대차 진출과 포스코, 롯데케미컬 투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속화 되고 있고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 다차원적,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류확산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방적 문화전달은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양방향 문화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신임대사는 올해 양국 수교 50년에 대해 “올해는 한인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포사회와 같이 고민하고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은 “중부자바주 암바라와의 역사적 장소 두 곳에 표지석을 세우고자 중부자바한인회와 뜻을 모아 함께 추진 중”이라며 후손으로써 기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고 “올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친선경기를 통한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교 50주년 기념, 인도네시아 한인을 주제로 인도네시아어판의 서적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대사관 신년인사회 및 대사관 표창 전수식에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업종별 한인진출기업 협의회, 민주평통 인니지부, 자유총연맹 인니지부 임원 등 표창 대상자 다수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신임대사 첫 대면이라서 한인단체가 예년보다 더 많이 참석한 것 같다”고 전했다.

대사관 표창 전수식에는 민주평통 의장 표창 2명, 재외동포문학상 3명, 2022년도 주인도네시아 대사표창 25명이 수상했다.

대사관 표창 전수식 대상자 명단(본지 14-15페이지 참고)



## 2022년 연말 대대표창자 (총 54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이주한	재인니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 KADIN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황준영	포스코 인도네시아 부장
윤병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차장
홍혁재	스틸리언 법인장
이승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인도네시아 지사장
윤희엽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이전협력관
Fikry Cassidy	Head of Center for Partnership Facilitation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
Amiruddin Arsyad	Deputy director for Bilateral and Subregional Cooperation
Leli Listianawati	소속: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직위: Head of Subdirector of International Taxation Agreement and Cooperation
김보균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간사
김수덕	PT. EUN KYEONG ENGINEERING INDONESIA
최경희	꼬끼 식당, 아이시스 스파 대표
정문교	발리세움한글학교 교장
정민섭	반동한인회 수석부회장
서재훈	반동한글학교 교무주임
박현두	족자카르타한인회 부회장
문성구	중부자바한인회
Gunung Imam, S. SH	중부자바한인회
김신	즈빠라한인회 고문
양필중	즈빠라한인회 수석부회장
안의현	메단한인회 총무
홍재권	메단한인회 회장
최제동	PT.CMS CHEMICAL INDONESIA 대표
최진덕	땅그랑반튼한인회 고문
강우용	땅그랑반튼한인회 고문
Marinda Angelia Zuhri	마카사르한인회 현지홍보팀 팀장
Andi Arini Lestari P.	마카사르한인회 현지홍보팀 매니저



성명	소속 및 직위
김일순	찌까랑한인회 간사
최태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도네시아 자문위원
박의태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
김필수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KOCHAM)
곽봉규	PT.Food Star Global 대표
조현보	재인도네시아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이영미	한인니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애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이찬욱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사
서보희	스마랑한글학교 교사(초등부 1학년)
강순옥	바탐한글학교 교사
김소영	족자한글학교 교사
김종성	자카르타한글학교 교장
박성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부회장
최희정	코원 부회장
배성운	칼리만탄한인회 자문위원
박영진	World OKTA Jakarta
Hajar Aswad	이민청 이민감독 및 집행국 이민수사와 Subdirektorat Penyidikan Keimigrasian, Direktorat Pengawasan dan Penindakan Keimigrasian,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이민조사조정관(과장) Koordinator Penyidikan Keimigrasian
Ketut Satria Widasmara	Subkoordinator Penyidikan Wilayah II
Abd Hannan	Penelaah Keimigrasian (merangkap PPNS)
Ukky January Linzki	Penelaah Keimigrasian (merangkap PPNS)
Dony Lusindra	Penelaah Keimigrasian (merangkap PPNS)
Andri Siagian	Penelaah Keimigrasian
Fadel Muhammad	Penelaah Keimigrasian
박병식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KVAC) 법인장
Windi Wulansari Denu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 Assistant Manager
곽영민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한국정부파견사범







## Natura(현물)와 Kenikmatan(향응) 제공에 대한 정부령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지난 12월 20일 정부령 55호(PP55/2022) 과 공포되었다.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부령으로 지난 조세조화법 (HPP)이 발효되면서 관련한 소득세 정부령도 개정하게 되었는데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손금산입, 감가상각, 현물/향응에 대한 과세, 조세회피방지, 국제협약, 기부금에 대한 면세, 특정과세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등의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중 아직도 논란중인 현물/향응에 대한 과세 규정에 대해 우선 언급하고자 한다.

### 제 24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물/향응

- a. 모든 직원(Seluruh Pegawai) 에게 제공되는 음식.음료
- b. 특정지역에서 제공되는 현물 및 향응
- c.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주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현물/향응
- d. 주예산, 지방예산(APBD), APBDDES등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제공되는 현물/향응
- e. 특정제한 업종에서 제공되는 현물/향응

제 25조부터 28조까지는 상기 해당 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 29조

현물(Natura)는 시장가치와 동일하고 향응(Kenikmatan)은 제공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하다. 또한 현물(Natura)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양도되는 금전 이외의 형태의 보상이고, 향응(Kenikmatan)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형태의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 30조

고용주 또는 제공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원천세 규정에 따른다.

#### 제 31조

절차, 구체적 보상형태, 평가 등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령 규정에 따른다.

결과적으로 구체적 내용은 재무부 장관령이 나와야 하겠지만, 제 73조 2항에 고용주가 소득세 공제 시스템을 준비하거나 조정할 공제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필요가 있으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받거나 벌어들인 현물과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원천세 공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2년은 개인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현물 및 향응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합산, 2023년부터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 대상” 이라고 하겠다.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 코참, <상공인의 날> 개최



코참(KOCHAM,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강현)은 ‘2023 상공인의 날’을 1월 13일, Damai Indah(PIK) 골프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신태용감독을 비롯한 160여명의 코참 회원들이 참가해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강현회장은 “서부자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모금에서 보았듯이 코참이 지향할 방향이며 이전의 회원사와 대기업회원사가 함께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 기대한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지만 힘을 모아 잘 극복하고 수교 50주년으로 코참이 해야 할 일들도 많을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동포사회, 가장 강력한 상공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성김 주인니미국대사는 “이상덕대사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다”며 한인들과 새해인사를 나누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상덕대사는 “인도 태평양 구상으로 오늘 성김 대사와의 만남은 의미있다. 한인사회가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코참과 함께 인도네시아와의 다각적인 관계 구축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골프대회 결과, 블루 자켓(A Flight Winner)의 주인공은 장윤하 한인중소기업협의회회장이 차지했다.

서지오와 요요미를 비롯한 트롯가수들의 신나는 무대와 시상식, 행운권 추첨 등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행사가 마무리 됐다.



# 2023 상공인의 날

## GO Global KOCHAM Together!





## 자유총연맹인도네시아 신년회



2023년 1월18일,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전민식)는 모던랜드 CC에서 신년회를 가졌다.

전민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350만명의 국내 회원과 세계 23개국에 지부를 갖추고 있는 외교부 및 통일부 등록 법률 기구는 물론, UN에 NGO로 등록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 온 공공단체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2023년 계묘년 3.1절기념행사를 시작으로 6.25 전쟁 기념행사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웅변대회 및 K-팝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가 교민사회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3년만의 정식 모임으로 많은 회원들과 초청인사로 성황을 이뤘다.



# 김진표 국회의장, 자카르타 동포 및 기업인 만찬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월 19일 자카르타 페어몬트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전 재인니한인회장, 이세호 민주평통 인도네시아지회장, 전민식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회장, 김윤기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 허영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코원) 인니지회장, 정선 한인포스트 대표, 이강현 재인도네시아한국상공인협의회회장, 김종현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인도네시아지회장, 장윤하 한인중소기업협의회회장, 이호덕 로얄수마트라 회장, 광봉규 Food Star Global 대표, 이영택 현대차 아세안권역본부장, 정수복 ST인터내셔널 인니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전재수·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중성 의원,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인니 동포사회가 백여년 긴 역사와 전통 아래 모범적으로 한-인니 우호관계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동포사회의 노고를 위로했다.

김 의장은 또 동포 간담회에 앞서 이뤄진 인니 대통령·하원의장·국민평의회의장과의 회동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인니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확대 및 구체적 사업의 진전에 대한 인니 고위 인사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우리 국회도 방산·인프라·수도이전·공급망 및 아세안·믹타(MIKTA)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은 “타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룬 재외동포들은 돌아갈 모국이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후세대에 좋은 미래를 펼칠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책임도 느끼는 만큼 750만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조속히 출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공: 재외동포신문)





이것들을....

### 지난호에 이어

사실 시위가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수카르노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매번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한다는 것은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인도네시아는 9월 28일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엔 재가입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그사이 수카르노 반대시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이젠 그의 잘못된 정책보다 수카르노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수카르노를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는 구호가 하늘을 찔렀다.

1967년 1월 10일 수카르노는 나왁사라(Nawak-sara)라고 알려진 서한을 MPRS에 보냈다. 거기에서 그는 9월 30일 쿠데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장군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은 자신으로서서는 예상치 못했던 경악스러운 일이었으며

자신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겪고 있는 도덕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제 격분한 시위대들은 수카르노의 교수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월 21일 소집된 MPRS 지도자들은 수카르노가 헌법상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고 2월 9일 고똥로용국회는 나왁사라 서한을 각하하는 결정과 함께 MPRS의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했다. 1967년 3월 12일 시작된 MPRS 특별회기에서 수카르노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었다. 그에 대한 탄핵사유는 이랬다.

1. 9월 30일 쿠데타를 방조하고 PKI공산당의 국제공산주의 의제를 지지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함.
2. 경제문제를 도외시함.
3. 수카르노의 무분별한 여성편력으로 국가적 ‘도덕성 타락’을 야기함.

인도네시아 독립선언의 영웅이자 전쟁과 외교를 통해 네덜란드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확장을 가져온 거인 수카르노는 그렇게 치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정지당해 대통령궁을 떠나야만 했다. 네덜란드 식민당국을 상대로 한 독립운동 당시 온갖 고초를 겪은 그였지만 한동안 절정의 모든 영광을 누린 끝에 해야하여 겪게 된 새로운 고초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뼈아픈 것일 수밖에 없었다.

### 역사 속으로

수카르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고르에서 임시 가택연금상태에 들어갔고 대통령대행으로는 수하르토가 임명되었다. 그 이듬해인 1968년 3월 27일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의 제 2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실각한 수카르노는 군의 린치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당시 수카르노에 대한 군의 감정을 가늠해 보려면 9월 30일 쿠데타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9월 30일 쿠데타는 수카르노에게 유고가 발생할 경우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PKI 당수 아이디트가 군대 안의 공산주의 옹호자들을 움직여 여섯 명의 반공주의 장성들을 살해했다는 것이 그간의 정설이었고 그래서 쿠데타가 실패한 후 학살수준의 대대적인 공산당 소탕이 인도네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것이다. 쿠데타보다 약 2개월 전인 1965년 8월 4일 당시 수카르노는 약한 심장마비를 경험했는데 이것이 아이디트에게 필요 이상의 경각심을 주어 수카르노가 병이나 발작으로 쓰러지기 전에 공산당의 반대파들을 숙청토록 강박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인 1998년 수하르토가 실각하자 일각에서는 수하르토가 자신의 보신과 정권욕을 위해 정적 제거차원에서 역쿠데타를 도모하여 수카르노에 대한 정치적, 물리적 암살을 총지휘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1999년 오랜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당시 쿠데타 주역중 한 명인 라티에프 대령은 당시 수하르토가 처음부터 쿠데타에 깊숙히 연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길크라이스트 문건에 언급된 서방의 지원을 업은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카르노와 PKI가 공조해 장군들을 납치, 살해했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수카르노가 10월 1일 할림공군기지에서 아이디트를 비롯한 사건주모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을 당시 수하르토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인도네시아 독립을 기여한 수카르노의 업적을 감안해 수카르노의 연루사실을 용의주도하게 은폐했고 그 모든 책임을 PKI에게 뒤집어 씌워 수카르노의 업적이 훼손되는 것을 막았다고도 한다. 이것이 당시 군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9월 30일 쿠데타의 정황이었다.

군의 시각에서 수까르노는 전우들을 납치 살해하도록 한 반역자일 뿐이었다. 그러한 정황은 수까르노가 실각한 이후, 그래도 가장 저명한 독립유공자이자 인도네시아 현대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지도자, 그러나 이젠 모든 실권을 잃은 한물 간 노인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군과 장성들이 그를 과도한 야박함으로 옥박지르고 타박했던 태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안이 MPRS 의회에서 처리되자 수까르노는 48시간 내에 대통령궁에서 퇴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아이들 대부분은 모친인 파트마와티의 집에 가 있던 상태였고 수까르노는 사환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린 후 이틀간 짐을 싸지만 미처 준비가 끝나지 않은 둘째 날, 수까르노는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등떠밀려 대통령궁을 떠나야만 했다. 그는 런닝셔츠 위에 옷도 제대로 갖추입지 못한 채 마지막 남은 작은 폭스바겐 승용차에 허겁지겁 올라타고 꼬바요란바루에 있는 파트마와티의 집으로 향했다.

다른 여인들과 수없이 새장가를 들면서 멀어져버린 본처 파트마와티의 집에 돌아와 처음엔 참으로 뽐뽐했음 그는 하루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고 기껏 화단식물들의 잎사귀를 쳐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폐에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신부전으로 인해 늘 약을 먹어왔지만 대통령궁을 떠난 후엔 약을 구할 수 없었고 대통령궁에 남겨놓고 온 그의 약품들은 군인들이 모두 폐기처분한 상태였다. 길거리에서 군것질할 돈도 없을 정도로 수까르노나 남은 사환들은 극도로 궁핍했다. 그나마도 그가 자주 외출하며 주민들 앞에 얼굴을 보인다는 소식을 접한 수하르토측 장교들은 이를 불쾌히 여겨 어느날 파트마와티의 집에 트럭을 몰고와 수까르노를 싣고 보고르로 옮겨갔다. 한때 그와 연대를 맺었던 나수티온의 MPRS가 그의 보고르궁 연금을 결정한 것이다. 연금기간 동안 적절한 진료

나 약품은 여전히 공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수의사가 수까르노의 진료를 맡았으므로 수까르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어느날 딸 라크마와티의 방문을 받은 수까르노는 더욱 병이 깊어 있던 그는 자신을 자카르타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친필편지로 써 라크마와티 편에 수하르토의 쏘다나 자택에 보냈다. 오래 숙고한 수하르토는 수까르노의 자카르타행을 허락하지만 파트마와티의 집 대신 위스마야소(지금의 가톨릭 수브로또 거리의 사프리아만달라 군사박물관)에 머물게 했다. 그러나 자카르타로 돌아온 후 그는 오히려 더욱 가혹한 군인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했다. 자기 방에서 나오는 것부터 아예 금지되었고 그가 무엇을 하든 군인들은 큰소리를 치며 닥달을 했다. 음식포장에 사용된 신문조각을 읽는 것조차 군인들은 호통을 쳤고 수까르노는 매우 더럽고 열악한 방안에서 살며 고작 비타민과 수면제 외에는 정작 그의 망가진 신장이나 그 합병증을 치료할 약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했다. 지금 같으면 일주일에 세 번 투석치료를 받아야 할 신부전 환자에게 투석은커녕 필요한 약도 공급하지 않았으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위스마 야소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그를 구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실제로 그의 숙소까지 뚫고 들어가 그를 빼내려던 일단의 부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까르노는 자신이 도망가면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며 탈출을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1970년 초 수까르노는 라크마와티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파트마와티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가 도착한 것을 알고 많은 인파들이 몰려 그의 이름을 연호했지만 손을 들어 화답하려는 그를 군인들이 제지해 급히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수카르노 서거

아직도 그를 추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군수부의 신경을 건드렸고 이 일로 인해 군인들은 더욱 더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2월에 접어들면서 수카르노의 병은 더욱 깊어져 잡도 못들 정도의 고통에 못이겨 비명을 지르곤 했지만 경비병들은 이를 모를 채 할 뿐이었다.

그 소식을 접한 모하마드 하타도 수하르토에게 일본주의적 관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였던 수카르노가 말년에 그토록 고통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수카르노를 만나게 해달라는 서한을 수하르토에게 보냈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곧바로 허락이 떨어졌다. 상태가 위독해진 수카르노는 위스마 야소에서 육군중앙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하타가 병실을 방문했을 때 수카르노는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위중했다. 그러나 마침내 하타를 알아본 수카르노는 북받쳐 흐느껴 울었다고 하며 하타 역시 인도네시아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의 선봉에서 함께 싸웠던 수카르노가 그렇게 군인들에 의해 뒷방에 내쳐져 죽어가도록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슴아파했다.

하타가 돌아간 지 얼마되지 않아 1970년 6월 21일 수카르노는 숨을 거두었다. 1945년 독립선언 당시 그는 도착이 늦어지는 하타를 기다려 그가 온 후에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러 나섰던 것처럼 죽을 때에도 하타를 먼저 만난 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것이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6월 20일 토요일 20시30분 수카르노는 급격히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다음 날 새벽 03시50분 혼수상태에 들어간 후 아침 07시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다. 당시 진료팀이 마지막 순간까지 수카르노를 회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진위는 하늘만이 알고 있을 따름이다. 사실 수카르노의 건강은 1965년 8월부터 쇠락하는 중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신부전증을 앓아 1961년과 1964년에 스위스 빈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현지 전문의들은 왼쪽 신장절제가 필요함을 진단했으나 수카르노는 전통방식의 치료법을 선택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돈과 권력만 있다면 신부전 정도의 병은 잘 달래고 치료하면서 얼마든지 국가원수로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불과 5년 후 가뭇 수브로또 군중앙병원(RSPAD)에서 이로 인해 결국 숨을 거두게 되리라곤 상상하지도 못하고 말이다. 그러나 인생의 반전이란 그렇게 불행한 쪽으로 굴절되기도 하는 법이다. 그의 시신은 다시 위스마 야소로 옮겨졌고 그의 진료팀 주치의로 지정된 마하르 마르조노 박사와 부주치의 육군소장 루비오노 꺼르또빠띠 박사가 수카르노의 시신을 검사한 후 사망을 선언했다.

다음호에 계속

<경제 비즈니스>

## KB부코핀, 시나르마스랜드와 주택대출 협력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KB부코핀 은행(PT Bank KB Bukopin Tbk)을 비롯해 현지 18개 은행이 부동산개발회사 시나르마스랜드(Sinarmas Land)와 협력해 주택대출 프로그램인 ‘스마트 무브’ (Smart Move)를 출시했다. 19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나르마스랜드가 개발한 스마트무드는 단독주택, 아파트 및 토지 등 부동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3년간 이자 보조금과 캐시백, 구매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스마트무브 프로그램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주택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소득 증가와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화율은 2019년 기준으로 55.99%(2019년 기준)로 도시화 진행이 속도를 내고 있어 주거용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

세다. 특히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MZ세대가 잠재적 구매자인 만큼 주택대출이 시장이 잠재 수요가 크다.

2018년 KB국민은행이 인수한 부코핀은행은 1970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KB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총 344개 지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 115개 상업 은행 중 자산 기준 19위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 10대 그룹 가운데 하나인 시마르마스그룹의 계열사인 시나르마스랜드는 제조, 금융, 부동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시나르마스그룹은 1980년대 펄프와 제지를 생산하는 ‘아시아 펄프 앤드 페이퍼(APP)’를 설립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어 식용유의 원료인 오일팜 농장을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북부수마트라 등지에 조성했다. 최근 시나르마스는 자카르타 외곽 남서부 땅그랑 지역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스마트시티인 BSD City를 조성하고 있다.

## 신발업체 니꼬마스, 1600명 권고사직 추진

스포츠화 제조업체 니꼬마스(PT Nikomas Gemilang)가 근로자 1,600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반딧주 세랑 지역에 위치한 니꼬마스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를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대만의 포우첸그룹(Pouchen Group)이 투자한 회사이다.

니꼬마스 노무 담당 관계자는 경영 악화로 1,600

명 규모의 직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말하면서, 권고사직 프로그램에 따라 퇴직직원들에게는 노동법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인상 △고인플레이션 △수출 주문 감소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롤모델인 인니 재벌 하리 따누”

인도네시아 재벌 하리 따누수딤요(Hary Tanoesoedibjo, 1965년생, 이하 하리 따누) MNC 그룹 회장은 미국 사업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대권을 향한 원대한 포부와 뜻을 갖고 있다. 하리 따누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지면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인도네시아의 미디어 제왕’이라 불리는 하리 따누 회장은 영국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과 비견되기도 한다. 그는 2016년 자산 규모 11억5천만 달러로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인도네시아 부자 29위에 이름을 올렸다.

MNC그룹은 공중파 TV 방송 4개와 라디오 방송사, 신문사 등 50여개 업체를 거느린 인도네시아 미디어(PT Media Nusantara Citra Tbk) 재벌이자, 파이낸싱(PT MNC Kapital Indonesia)과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개발회사(PT MNC Land Tbk)를 운영하는 복합기업으로 트럼프 호텔과 공동으로 자카르타와 발리에서 대형 리조트 건설을 추진했었다.

MNC그룹이 보유한 TV 방송 채널 중 RCTI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민영 지상파 방송국 가운데 하나다.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매체였으나 최근 소셜미디어(SNS)의 확대되면서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리 따누의 아버지는 독실한 이슬람 신자로 인도네시아 제 4대 대통령인 압두라만 와히드(일명 구스두르)와 가까운 사이였다. 1965년 동부자바 주도 수라바야에서 6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하리 따누는 수라바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캐나다 칼턴대학교(Carleton University)를 졸업하고, 1989년 오타와대학교(University of Ot-

tawa)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하리 따누 회장은 2011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완성형 걸그룹으로 알려진 JKT48을 론칭했다. JKT48은 일본 걸그룹 AKB48을 만든 아키히토 야스시 프로듀서와 공동으로 만든 걸그룹이다.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JKT48은 AKB48의 자매 그룹으로 AKB48를 모방하면서도 인도네시아 독자적인 문화에 맞춘 아이돌 그룹이다.

하리 따누는 명강사로도 유명하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열리는 명성있는 콘퍼런스 연사로 초빙돼 미디어산업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대학원에서 재무, 투자 및 경영전략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업에 성공해 큰 부를 축척한 하리 따누 회장은 정치에 발을 디딘다. 그는 2011년 수르야 빠르가 설립한 나스데미당(Nasdem Party, 민주민족당)에 입당했다. 하지만 2012년 당내 주도권 싸움이라는 논란 속에 탈당하고, 2013년 위란토 장군이 당 대표인 하누라(Hanura Party, 국민양심당)으로 갈아타, 2014년 대선에서 위란토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표를 던진다. 하지만 국민양심당은 총선에서 득표율 2.86%에 그치면서,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2015년에 인도네시아연합당(Perindo Party)을 독자적으로 창당한다.

하리 따누 회장은 2017년 자신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현지 검찰을 협박한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물의를 일으켜 한때 출국금지 조치되기도 했다. 따누 회장은 한때 자신 소유였던 이동통신사 모바일-8 텔레콤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2016년 율리안토 인도네시아 법무차관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설음식

한국인에게는 설날하면 ‘떡국’이 떠오를만큼, 음식은 설날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설날 어떤 음식을 먹을까?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설에 먹는 음식에는 소망이 담겨 있다. 2015년 출판된 책 ‘중국 사회의 음식, 식습관 및 문화’에서 저자 꾸안승마는 “종교에서는 먹는 음식의 상징적인 의미가 영양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썼다고 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예를 들면, 해초는 ‘부자’와 발음이 같다. 국수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고, 찹쌀밥은 단란한 가족을 의미한다.

신문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생각하는 설음식을 소개하고, 설에 대한 감상을 전했다.

### 미수아

해늑 수꼬위조요(시드니대학교 대학생, 24세)는 말랑에서 대가족으로 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미수아(misua)를 꼽았다. 그는 “설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특별하다. 대부분 가족이 설에 모인다”고 말했다.

미수아는 소금에 절여 양념한 얇은 밀당면으로, 중국 푸젠성에서 시작돼 캄보디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갔다. 인도네시아어로 미(mi)는 국수이며, 중국인들은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산다고 믿는다.

육수는 치킨스톡을 쓰기도 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새우 등을 고아서 만들고, 고명으로 버섯과 두부를 얹는다. 채소만 고아서 채소육수를 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수아 요리는 비건(vegan) 요리로 활용된다.

해늑 씨는 그의 할머니가 가족들을 위해 설 전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바삭한 완탕 껍질, 삶은 달걀, 삶은 새우 등 모든 재료를 직접 준비하셨다며, 할머니와 떨어져 사는 동안 혼자서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아서인지 끝내 같은 맛은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가족을 위한 할머니의 정성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발효시킨 붉은 쌀을 함께 끓인 닭백숙(sup ayam angkak)

말랑에서 레스토랑 위다리(Widari)를 운영하는 데이빗 수산또(35세)는 설음식으로 솥 아얌 앙각을 꼽았다.

솥 아얌 앙각은 토종닭과 앙각만 넣은 소박한 요리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생강과 후추를 첨가하기도 한다.

앙각은 빨간 쌀 누룩으로 중의학에서는 몸에 활력을 주고 소화를 돕고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의료서비스 중개 플랫폼 할로독(Halodoc.com)은 앙각에 대해 백미를 효모(Monascus purpureus)로 발효시켜서 붉게 변한 쌀이라고 설명하고, 유용한 성분도 있지만 발효 부산물인 시트리린이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의를 당부했다.

8년 전에 돌아가신 데이빗의 할머니는 설에 집에 모이는 가족들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는 고객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데이빗은 “이것은 전통적인 요리법이다. 할머니가 요리법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도 솥 아얌 앙각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 새우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제니퍼 마까리아(24세)는 삼촌의 특제 소스를 뿌린 새우찜을 좋아한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설 상차림은 새우요리로 완성된다.

광둥어로 새우는 ‘하하’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이 웃음소리처럼 들려서, 새해에 새우를 먹으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온가족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새우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한다.

## 생선

자카르타에서 일하는 직장인인 리아 수리아니는 설음식으로 생강, 마늘, 고추, 간장, 굴소스 등을 섞어 만든 소스를 뿌린 생선찜을 좋아한다. 중국어(만다린)에서 물고기 발음인 “유yu”는 소원과 풍요를 의미하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하다. 따라서 물고기는 부와 행복을 상징한다.

잡비가 고향인 리아는 어머니를 도와서 설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와 교감하는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족 모임을 하지 못했으며, 올해 가족 모임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 2024년 대선, 어느 후보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가?

2024년 2월 14일(수) 인도네시아 대선·총선이 같은 날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올해 11월 28일부터 실시되지만, 올 한 해 선거 열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돼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헌법에 대통령직은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5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10년 동안 집권하게 된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업인들에게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조코위 대통령과 같은 노선의 후보가 당선될 지, 아니면 다른 노선의 후보가 당선될 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앞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보다 투자에 필요한 법률과 규제를 완화하는 데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했고, 성공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조코위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 정부예산에 큰 부담을 준 석유보조금 삭감, 일자리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을 제정해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처리한 사항들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며 복잡다단한 문제였다. 그러나 조

코위는 실행했고 차기 대권 주자에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대선에서 뿌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와 간자르 뿌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의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뿌라보워는 자바섬 이외 지역에서 지지도가 높은 반면, 간자르는 자바섬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간자르가 대권을 쥐게 된다면 조코위의 정책과 비전을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투쟁민주당(PDIP) 대선 후보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당총재가 친딸인 뿌안 마하라니를 지명할지, 아니면 인기도가 상승하고 있는 간자르를 선택할지에 달려있다.

만일 뿌라보워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현 조코위 정부의 기조에 다소 변화가 생길 것이다. 뿌라보워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조코위 정부만큼 친화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2014년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에 패배한 뿌라보워는 외국인 투자자를 우대한 조코위를 비판했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지난 호에서 {ter-}를 공부했는데, ‘사람’을 뜻하는(명사)로 쓰이는 대표 단어 몇 가지를 살펴보고 {ke-an} 접환사(접두사+어근+접미사)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 terlapor, tersangka, terdakwa, terpidana

☆**terlapor** [KBBI] orang yang dilaporkan 신고를 당한 사람 ⇒ 피신고인

※ pelapor 신고인 : orang yang melaporkan

☆**tersangka** [KBBI] orang yang telah disangka berdasarkan keterangan saksi atau pengakuannya sendiri 참고인/목격자의 진술이나 자백에 따라 혐의가 있는 사람  
⇒ 피의자 (범죄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

☆**terdakwa** [KBBI] orang yang didakwa telah melakukan tindak pidana dan adanya cukup alasan untuk dilakukan pemeriksaan di muka persidangan 범죄혐의가 있어 기소된 자로, 재판을 통해 신문을 받아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 피고인(형사 소송에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를 받은 사람)

☆**terpidana** [KBBI] orang yang dikenai hukuman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terpidana) terpidana adalah seseorang yang dipidana berdasarkan putusan pengadilan yang telah memperoleh kekuatan hukum tetap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문법서(A Student’s Guide to Indonesian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를 참고하면, {ke-an}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한눈에” 먼저 살펴봅시다.



## [1] 유쾌하지 않은 많은 상황을 겪을 때 (기후나 몸의 상태와 연관)

\*어근의 품사는 형용사, 명사

dingin	춥다	→	<b>keinginan</b>	너무 춥다	(to suffer from cold)
			= menderita dingin		
banjir	홍수	→	<b>kebanjiran</b>	홍수가 나다	(to be caught in flood)
			= diserang banjir		
lapar	배고프다	→	<b>kelaparan</b>	너무 배고프다	(to be starved)
			= menderita lapar		
semut	개미	→	<b>kesemutan</b>	(손,발이) 저리다	(to get pins and needles)

※ kelaparan (n. 기근) = kekurangan makan

※ kebanjiran (비유) kedatangan banyak-banyak (melimpah 넘치다)

예) kebanjiran order 주문채도

## [2]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거나 감정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sulit	(상황이) 어렵다	→	<b>kesulitan</b>	어려움을 겪고 있다	(be in a tough situation)
takut	두렵다	→	<b>ketakutan</b>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	(too scared)
	걱정스럽다				
hilang	사라지다	→	<b>kehilangan</b>	잃어 버리다	(to lose something)
	없어지다				
tahu	알다	→	<b>ketahuan</b>	들키다	(to be caught red-handed ‘현장에서 발각된’)

☞ 사실 감정과 관련된 단어 빼고는 [1]과 [2]가 크게 구분되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 ‘이런 의미들로 구분이 되는 구나’ 하고 한눈에 훑어 공부한 후, 대표적인 단어를 개별 예문을 통해 익히면서 그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는 수 밖에 없지요.

## [3] 너무 ~한 상태

besar	크다	→	<b>kebesaran</b>	너무 크다	(too large/big)
capai	피곤하다	→	<b>kecapekan</b>	너무 피곤하다	(too tired, exhausted)
	(capek)		<b>kecapaian</b>		
mahal	비싸다	→	<b>kemahalan</b>	너무 비싸다	(too expensive)
panjang	길다	→	<b>kepanjangan</b>	너무 길다	(too long)

\*capai (맞춤법 kecapekan도 허용)

※ kepanjangan (n. 길이) = panjangnya

n. 폴네임 Q : PMI kepanjangannya apa? A: Pekerja Migran Indonesia

#### [4] 추상명사

bahagia	행복하다	→	kebahagiaan	행복	(happiness)
cantik	예쁘다	→	kecantikan	미용, 美	(beauty) + aesthetic
duduk	앉다	→	kedudukan	지위	(position, rank)
sehat	건강하다	→	kesehatan	건강;보건	(health)
	건전하다			건전성*	
cepat	빠르다	→	kecepatan	속도	(speed)
kuat	힘이 세다	→	kekuatan	힘	(strength)

\*재무 건전성을 예로 들면 영어로는 soundness, consolidation, sustainability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어로 표현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kesehatan fiskal

☆ **kecepatan** : 이 단어는 명사로 ‘속도’라는 뜻도 있지만, ‘시계가 5분 빨리 간다’ 처럼 Jamku kecepatan lima menit. 와 같은 예문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 **kekuatan** 활용 예시

kekuatan militer 군사력

negara kekuatan 강대국 \*negara yang kuat (x)

negara kekuatan ekonomi 경제강국

negara (dengan) kekuatan menengah 중견국

[기타] ‘(시간)때’와 관련된 단어

**kemalaman** (=terlalu malam), kepagian (=terlalu pagi),

**kesiangan** (=terlalu siang), kesorean (=terlalu sore)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kemalaman과 kesiangan 이 두 단어가 자주 쓰임.

Pulangnya **jangan kemalaman** ya. 너무 밤늦게 다니지마(집에 일찍 들어와).

**Pulang cepat ya (x)**

Maaf, aku **bangun kesiangan**. 미안, 나 늦잠 잤어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일어났네).

어떤 단어들은 여기에도 해당되고, 저기에도 해당되잖아요. 그런 건 맥락에서 파악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헛갈려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어 표준문법서인 <Tata Bahasa Baku : Bahasa Indonesia / Edisi 3> 책에서 {ke-an}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공부해 봅시다.

①의미 : keadaan yang menyatakan segi-segi negatif, segi-segi yang tidak menyenangkan atau menguntungkan. 부정적인 면을 표현하는 상황, 유쾌한 일이 아니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mengalami kerugian).

- |               |  |                        |
|---------------|--|------------------------|
| 1. kelaparan  | Kami <b>kelaparan</b> .                    | 저희 배고파요.               |
| 2. kesakitan  | Karena <b>kesakitan</b> , dia menangis.    |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다.         |
| 3. kemalaman  | Kami <b>kemalaman</b> di Payakumbuh.       | 파야콤부에서 밤늦게까지 있었다.      |
| 4. kehabisan  | Sekarang kami sudah <b>kehabisan</b> uang. | 이제 돈이 다 떨어졌다.          |
| 5. ketumpahan | Celananya <b>ketumpahan</b> kopi.          | 바지가 커피로 다 젖었다.         |
| 6. kemasukan  | Dia seperti <b>kemasukan</b> setan.        | 개 귀신 들린 거 같아.          |
| 7. kebanjiran | Kita <b>kebanjiran</b> (barang Jepang).    | 홍수 났어.<br>일본 제품이 넘쳐난다. |
| 8. kecurian   | Orang itu <b>kecurian</b> sepeda.          | 그 사람은 자전거를 도둑맞았다.      |

\*표준문법서에서는 kemalaman을 유쾌하지 않은 상황을 겪는 것으로 구분해 두었네요.

Buku itu **ditinggalkan** di perpustakaan. 그 책을 (일부러) 도서관에 두고 왔다.

Buku itu **ketinggalan** di perpustakaan. 그 책을 모르고 도서관에 두고 왔다.

(책을 도서관에 어쩌다가 모르고 두고 와, 어떤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

★di- 와 ke-an 의 구조적 차이점 : 둘 다 oleh를 쓸 수 있지만, ke-an의 경우 어떨 때는 oleh를 쓸 수 없을 때가 있다.

Perbuatan itu **ketahuan** istrinya. (o)

Perbuatan itu **ketahuan oleh** istrinya. (o)

Dukun itu **kemasukan** setan. (o)

Dukun itu **kemasukan oleh** setan (x)

②의미 : hal yang berhubungan dengan sumber verba/adjektiva/nomina 어근 자리에 활용한 동사, 형용사, 명사와 관련이 있는 것

keberangkatan : hal yang berhubungan dengan berangkat 출발; 출국

kekecewaan : keadaan kecewa 실망

kemanusiaan : hal mengenai manusia 인간에 대한 것 → bantuan kemanusiaan 인도적 지원

③의미 : 여러 가지를 모아둔 것

kepulauan : 섬을 모은 것 → 군도, 제도 Kepulauan Riau 리아우제도

3월호에서 더 많은 예시를 통해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 Suji - Suan Cai Yu

황지영 (PT. Prime Freight Indonesia)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를 보내기 아쉬워하며 서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눈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새해가 되고도 한 달이 지났네요. 명절도 있었고, 연초 행사와 약속에 다들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죠? 명절에는 가족들끼리 모여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보내셨나요? 한국에서 지금 추운 한파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자카르타 또한 우기 막바지라 밤에 조금 쌀쌀하고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몇 있으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2월 호에서 몸보신하시고 따뜻한 국물이 있는 생선 요리를 들고 왔습니다.

‘썬차이위’라고 불리는 생선 요리인데요. 썬(酸)은 중국어로 신맛이라는 뜻이고, 차이(菜)는 야채, 위(鱼)는 물고기입니다. 즉 신채소 물고기인데요. 여기서 썬차이는 김치나 피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소금에 절인 배추입니다. 비주얼상으로 보기엔 한국 시래기와 비슷하지만 맛은 약간 김치 맛이 납니다. 썬차이위는 중국 사천요리인데요, 썬차이에 민물고기를 넣고 각종 향신료나 고추와 함께 푹 끓인 요리입니다. 썬차이위는 중경 강진의 강촌 어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팔고 남은 생선에 썬차이를 넣어 끓여 먹기 시작하면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마라탕이나 휘귀만큼이나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국민 음식입니다. 저도 중국 유학 시절 추운 날씨에 친구들과 썬차이위 하나에 밥 한 공기씩 시켜 먹곤 했는데요. 어떤 담수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지고, 새콤하고 짭짤한 썬차이의 맛과 육질이 합해져 깔끔한 맛이 납니다. 그 자체만으로 먹기도 하고, 밥이나 기타 채소 요리와 함께 먹기도 합니다.

일단 식당에 들어가시면 중국식을 꾸며져 있는 인테리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먼저 물고기 종류에 따라 고르실 수 있는데 Gurame와 Kerapu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생선인 구라메는 붕어류이고 끄라뿌는 우럭이나 다금바리 종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쫄깃한 흰 살 생선이기 때문에 취향껏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Kerapu가 베스트셀러라고 하여 Kerapu를 선택하였습니다. 마릿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한 마리: 439,000 루피아 ++, 두 마리: 689,000 루피아 ++, 세 마리: 999,000 루피아 ++). 그리고 이제 steam으로 하실지 goreng (튀김)으로 하실지 고르면 되는데 똑같이 탕으로 나오긴 하지만 goreng으로 하시면 생선 살에 튀김 옷이 입혀져 있고, steam으로 하시면 생선의 흰 살 그 자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생선요리가 메인인 만큼 튀김 옷이 없는 쫄깃한 생선 본연의 흰 살을 느낄 수 있는 Steam을 추천드립니다. 비주얼을 보시면 기름진 국물에 생선, 고추, 그리고 국화 꽃잎이 토핑되어 있어서 아주 색감적으로도 화려하고 많은 향신료가 들어간 느낌이라 한눈에 봐도 중국 요리

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중국요리의 특색이죠!

화자오(花椒)가 들어있어 혀가 얼얼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귀에서 보이는 큰 후추 덩어리 같은 산초가 화자오입니다. 생선 요리법도 선택하셨다면 이제 맵기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매콤한 걸 잘 못 드시거나 아기와 동행하신다면 고추나 화자오는 아예 빼는 것도 가능하니 문제없습니다. 맛을 표현해 보자면 담백한 흰 살 생선이 기름기 많은 국물에 빠져있어 느끼하시다 느끼실 수 있지만 피클 역할을 하는 시큼 상큼한 한국의 ‘시래기’ 처럼 생긴 이 ‘싼차이’ 때문에 전혀 질리지 않고 끊임없이 음식들을 배에 집어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생선도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고 촉촉하고 적당히 기름지고 담백합니다.

이렇게 주문한 생선에 회귀처럼 다른 것들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 뜨겁게 나온 탕에 잘 풀릴 수 있는 면이나 완자, 두부피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Kulit Tahu Goreng (39,000 루피아++)인데요, 튀긴 두부피를 돌돌 만 것입니다. 아주 고소하고 얇은 유부 맛인데요, 얇기 때문에 국물에 10초만 적셨다가 건져내도 아주 국물 간이 잘 배여있을 겁니다. 저는 이 튀긴 두부피를 아주 좋아해서 회귀 먹을 때도 꼭 시켜 먹는데요, 여러분도 회귀 먹을 때도 꼭 시도해 보세요.

다음으로 이제 면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중국요리인 만큼 쫄깃하고 간이 잘 배는 넓적 당면 (Spun Ubi Lebar: 42,000 루피아++)도 좋고요, 고구마 면 (Mie Ubi Lebar: 35,000 루피아++)도 추천드립니다. 탄수화물 칼로리가 부담스러우신 다이어터 분들께는 두부 면인 (Kulit Tahu: 30,000 루피아++)도 추천드립니다. 그 외 팽이버섯, Bakso (고기완자) 같은 것들도 취향껏 추가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선요리만 있으면 심심하니 다른 요리도 시도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사이드 요리도 몇 가지 추천드립니다. 먼저 Jagung Telor Asin (98,000 루피아 ++)입니다. 옥수수 알알이 튀긴 요리인데요. 양념은 Salted Egg 맛이라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단짠단짠의 정석이라 밥반찬으로 먹기에도 좋고 그냥 간식으로 먹기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동반하신다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사이드 요리는 Ayam Goreng Lemon (98,000 루피아 ++)입니다. 레몬 치킨입니다. 중국요리에서 레몬 치킨도 껌바로우 못지않게 대중적이고 유명한 요리인데요, 새콤하고 달달한 닭튀김도 도전해 보세요. 이 요리는 향신료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맛있는 맛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선택하시기 번거롭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세트 메뉴(Paket Kerapu SCY 1 Porsi: 548,000 루피아 ++)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시작 전 했던 다짐과 목표를 향해 얼마큼 달려나가고 계시나요? 저는 연초라 약속도 많아지고 바빠져서 자기개발에 기여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잠시 새해 다짐을 잊고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해이해지지 않고 새해에 했던 그 굳은 믿음과 다짐을 잊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2월인 거 같습니다. 바쁜 연초에 잦은 술 약속과 쌀쌀한 날씨에 지쳐버린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해 따뜻한 생선 국물 요리 어떠세요? 저는 그럼 3월에 더욱더 유익하고 맛있는 맛집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한 달 후에 만나요! ☺

### 〈식당 정보 : Suji- Suan Cai Yu〉

음식 종류 : 중식

가격대 : Rp 250,000-3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 10:00

주 소 : ASHTA at District 8, Jl. Jenderal Sudirman,  
RT.8/RW.3, Senayan, Kec. Kby. Baru,  
Jakarta Selatan, Jakarta 12190

※ Google 참고



##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의 해 설날 문화체험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인 2023년 설날을 맞아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행사를 1월 24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함께 즐기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새해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진 복조리를 직접 만들고, 복을 빌어주는 덕담을 적은 책갈피 제작과 한복 입기 등 체험도 즐길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 명절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며, 다양한 명절 체험을 직접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이다.

설날 문화체험 행사 관한 정보는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id.korean-culture.org](http://id.korean-cultur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인뉴스>에 바란다!!

《어린이 한인뉴스》가 발행된다면?

어떤 코너가 있으면 좋을지 어린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강울** (JIKS, 5학년)

- 인도네시아에 근무하고 계시는 다양한 직종의 분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 -출동! 현장으로
- 주말에 다녀온 곳 장소와 맛집 소개하기-핫플 다녀왔어요!

**강나엘** (Morning Star Academy, G2)

- 우리들의 숨씨 자랑 (그림 또는 글 올리기): 이번 달에는 1학년, 다음 달에는 2학년 등 모든 학년이 참여 가능하도록 학년 별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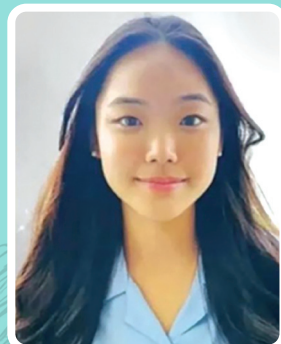


**이두아** (JIKS, 5학년)

- 유명 아이돌 공연일정과 연예기사 전형례 (자카르타)
- 웹툰 코너, 짤 뉴스, 학교 소식

**황다인** (BSJ (British School Jakarta) Y11)

- 우리가 쓰는 소설은 어떨까요? 아이들만 펼칠 수 있는 상상력을 이용해 소설을 쓰면 독자들이 좋아할 거 같아요!





**이민우** (Sinarmas World Academy, G1)

- 재미있는 전래동화 이야기. 내가 그린 삽화로 우리나라의 전통 전래동화 이야기를 전해주는 코너.



**이현우** (Sinarmas World Academy, G3)

- 이달에 새롭게 출시한 닌텐도 게임팩 소개. 가장 저렴하거나 혹은 가장 신상 게임을 많이 보유한 가게 장소나 온라인 사이트 소개하는 코너

**박수진** (땅그랑)

- 키즈 운동 커뮤니티/학원 소개. 종목별로 아이들이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 혹은 학원을 소개하고 인터뷰 하는 코너. (수강료, 위치, 연락처 정보 공유)



**윤다운** (Sampoerna Academy BSD, G1)

& **윤아윤** (Sampoerna Academy BSD, K1)

- 인도네시아에서 지내는 어린이들의 그림일기
- 어린이가 좋았던 여행지 소개 (어른들 의견 참고)
- 우리들이 가 볼 만한 다양한 전시나 체험활동 소개글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호에 계속





## '이제 와서'가 아닌 '지금이라도'

글: 손예리(일본어 번역가)

특정 나이에 맞춰 해야 하는 것들을 사회가 정해놓은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때가 많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마치 인생 승부가 거기서 끝난 것처럼 원 없이 놀다가 대학 3학년 정도부터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다. 좋은 곳에 취업하고 나면 그 다음 인생 코스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일, 거기까지 이뤘으면 그 후엔 아이를 낳아 가족을 꾸리는 일, 이렇게 '일정 나이가 되면 해야 하는' 대입과 취업, 결혼, 육아를 향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려나간다. 그 밖의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감히 생소한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도 그만큼 확고한 꿈도 아직 찾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30대 직장인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발견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에 나가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정작 본인 스스로 '이제 와서 될까?' 라는 의구심을 품는다. 그런데 40대가 보면 30대는 한창 때이다. 뭐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부딪혀 볼 만한 나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0대가 보면 지금의 40대는 아직도 젊고 '좋은 나이'가 된다.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누군가가 젊고 늙었다는 판단은 각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기에 상대적인 것이다. 또한 나이는 어렵도 아무런 의욕 없이 수동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나이는 많아도 늘 배우려 하고 주변의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며 능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생기가 넘친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곳 취직했다고 이제 늙었다고 고작 스무 살에, 서른 살에, 마흔 살에 배우기를 놓아버리고 가만히 남은 오십여 년의 세월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10대에 최고의 공부 효율을 내고 20대엔 꿈을 찾아야 하고 30대까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야만 하는가. 저마다 인생의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꽃 피는 시기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점점 어느 나이까지 뭔가를 해야만 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 언제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하고 알아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든 전후로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000주라고 한다. 지금 불혹의 나이라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2000주인 셈이다.

지난 2000주의 시간들을 열심히 달려오다가 남은 2000주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지, 후반전 2000주의 시간들을 자신에게 더 가치 있게 살아나갈지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늘 ‘이제 와서’를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건 자신만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본 프로듀서 ‘아키토 야스시’는 말한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야’라고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와서’라는 말은 포기하려는 스스로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낫다. 십 년 후 현재의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십 년 젊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길이 조금은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일본의 국민 시인이자 서예가인 아이다 미츠오(1924~1991) 선생의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 산다는 건

매일 무언가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은 새롭게 발견하고 감동하는 것.

세월과 함께 얼굴에 주름은 생기지만  
마음속 주름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에 주름이 생겼을 때  
우린 더 이상 감동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요.

감동하고 감격하는 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직함도  
일절 관계없습니다.

평생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괜찮으니  
감동 가득한, 감격에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이다 미츠오(相田みつを)





## [칼럼] 자카르타 한식당, 경험 공간으로 진화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자카르타 한식당이 진화하고 있다. 2010년대 무렵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류가 증가하고 인도네시아인이 적극적으로 한식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식당의 음식과 경영 등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외식문화 자체가 큰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 음식 자체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갈망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식당이 매우 빠른 속도로 무한히 진화하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한식당의 경험 공간으로의 변모이다.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한국음식을 먹고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할 수 있는 곳이 한식당이다. 이는 한국과 한국문화를 좋아하고 소비하는데 적극적인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맞춘 결과로 보인다. 『2023 대한민국을 이끄는 외식 트렌드』의 저자 이윤화 푸드칼럼니스트는 2023년 대한민국을 이끄는 외식트렌드의 시그니처로 ‘골목에서 놀다, 골목상권’을 꼽으며, 식당이 끼니를 경험재로 바꾸는 공간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경험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공간에 남겨서 정보로 활용하는 형태에 대해, 데이터 전문가 송길영은 “즉적을 남기는 사회”라고 표현했다.

자카르타 롯데 쇼핑 에비뉴 ‘골목길상회’는 1970~80년대 한국의 골목길을 재현한 레트로풍 상가이다. 현재 떡볶이와 김밥 등을 파는 포장마차와 한국 교복을 대여해주는 상점이 운영 중이고, 주말에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모여서 k-pop 노래를 부르고 춤을 따라하면서 즐긴다. 자카르타 근교 서르뽕 지역에 위치한 사우스78(South78) 건물 내 마켓이룸푸드코트(Market Iruum Foodcourt)는 한국 백화점의 푸드코트 컨셉으로, 떡볶이와 김밥, 한국식 닭튀김, 자장면 등 가벼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옆에 자리잡은 슈퍼마켓에서는 다양한 음료를 포함한 한국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자카르타 롯데쇼핑에비뉴 골목길 상회는 1970~80년대 한국 골목길을 재현했다.



두 번째 눈에 띄는 특징은 한국인 청년 셰프들과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지화하고 업그레이드된 외식 상품과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초기 한식당이 한국인 관점에서 한국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와 한국음식을 재현하는 컨셉이었다면, 최근 한식당은 현지인이 생각하는 한국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인테리어와 떡볶이와 김치볶음밥, 자장면, 양념치킨, 냉삼(냉동삼겹살) 등 한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거나 한국 여행 때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음식을 판매한다. 무엇보다 한국인 셰프가 마케팅 전면에 나서면서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인플루언서로 등극한 것. 이는 식당들 입장에서 가정에서 먹는 음식과 차별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배달음식의 영역이 확장됐고, 한국슈퍼만이 아니라 현지 슈퍼에서도 다양한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게 돼, 가정에서 얼마든지 한식을 먹을 수 있게 됐지만, 한식 전문 셰프가 만들어 주는 음식과,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와 다른 고객들과 어우러지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식당에서만 즐길 수 있다.



▲서르뽕 사우스78 마켓이룸푸드코트는 한국의 푸드코트를 재현했다.



▲자카르타 롯데 쇼핑 에비뉴 골목길상 회에는 떡볶이와 김밥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다.



▲ 서르뽕 사우스78 이룸푸드코트에서 판매하는 짬뽕, 자장면, 어묵, 김치, 떡볶이, 김밥 등 음식



▲자카르타 근교 리본 까라와찌에 위치한 산정은 끓는 물에 담근 수저를 제공한다.



▲자카르타 꼬망에 있는 달빛포차의 상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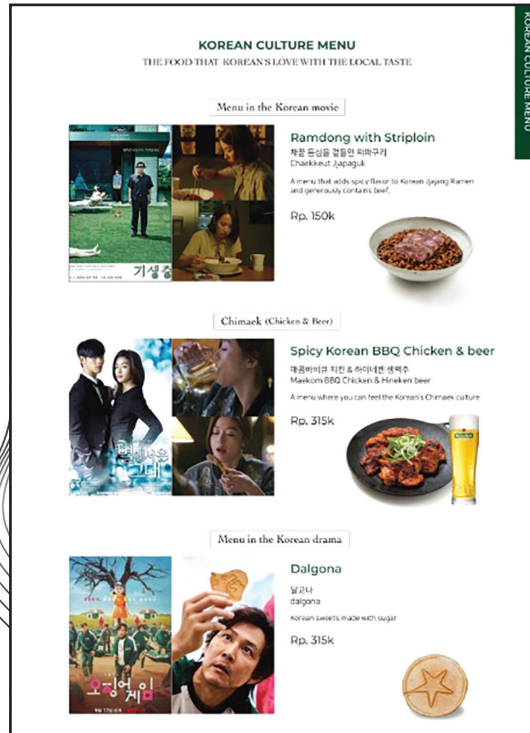
세 번째 눈에 띄는 특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방역 영향으로 한식당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식당과 카페들이 전체적으로 위생관리가 개선된 점. 깨끗하게 씻어서 잘 건조한 수저를 종이에 포장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끓는 물에 담근 수저를 제공하기도 한다. 손소독제와 물수건 외에도 화장실과 별개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식당 입구나 매장 안에 갖춘 곳도 늘었다. 일부 식당은 테이블 간격이 넓어졌다. 또 연기와 열기 그리고 소음을 피하기 위해 고기를 식탁 옆에 마련한 별도의 탁자에서 구워서 제공하기도 한다.

네 번째 특징은 한국식 주점 포차로, 기존 정찬에 비해 캐주얼해진 음식과 다양한 술을 판매한다. 현지 젊은이 취향에 맞춰, 한식을 좀더 젊고 자유롭고 개성 있게 표현하며, 한옥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 대신 웹툰 캐릭터와 서울 도심을 상징하는 요소들로 매장을 구성했다. 또한 스파게티 소스를 이용한 까르보나라 떡볶이와 트리플과 치즈를 더한 감자전 등 식재료와 조리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음식을 제공한다. 술은 기존에 판매하던 소주, 맥주, 막걸리, 전통주 외에도 와인과 다양한 맛이 가미된 소주를 판매한다.



▲ 자카르타 꼬망에 있는 달빛포차 매장

마지막으로 한류의 적극적 활용도 눈에 띈다. 최근 개업한 우다움+62은 한식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인들을 위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음식들로 구성된 스토리를 넣은 메뉴를 제공한다. 이룸푸드코트는 영화 포스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카르타 멘텡 지역에 최근 개업한 우다움+62의 메뉴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식 문화가 주변 환경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한식당도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수많은 탈바꿈을 하며 진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가 경험 속에서 규정짓는 한국음식과 한국인이 주도하는 한국음식이 상품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거기에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간단한 식사를 하더라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플랫폼에 인도네시아인이 올린 한식당 이용 후기에는 떡볶이 국물이 싱겁고, 김치가 덜 익었고, 김밥의 밥이 딱딱하다고 지적하는 댓글도 있다. 여전히 어설피고 지저분한 곳이 있고, 음식과 서비스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곳도 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식당 콘셉트가 100%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자카르타 한식당은 더 이상 한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현지인을 주 고객으로 하게 되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골프의 교훈

김 준 규 시인 / 수필가 / 한인문인협회 회장

jinn.kim@outlook.com



“골프는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꼽으라면 자식의 문제와 골프라고 한다. 그만큼 인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바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자식의 일이고, 골프 또한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들 원하는 만큼의 실력이 향상되기 어렵다는 뜻도 된다. 사람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나의 모습과 같지는 않더라도 내가 살아온 지난 과거 보다는 보다 더 나은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기 바란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식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노후에 겪을 자신의 생활보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전 재산을 자식에게 쉽사리 물려주기도 한다. 자식의 문제와 골프 운동이 상관하는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원 구조의 운동성 이다.

새로 태어난 자식을 위하여 아무리 좋은 조건하에 교육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어도 그들의 사고는 부모세대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탈피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의 돌발적이고 넘치는 열정은 때로 헛발질을 하며 정도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발상의 전환으로 사회적 성공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쳐서 부모를 당황하게 만든다. 잔디밭에 떨어진 예쁜 공을 칠 때, 원하는 곳에 멀리 보내고 싶은 기대와 욕망이 앞설수록 대개는 공의 방향이 엉뚱하게 슬라이스나 오비현상이 발생하여 울상이 될 때가 비일비재 하다. 골프에서는 무념무상 욕심을 비우고 공을 칠 때, 비로소 잘 맞추게 되고 방향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정설로 되어 있다.

자식이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이나 결혼 문제도 날아가는 골프공의 불확실한 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결과를 놓고 보면 어느 날은 좋은 컨디션으로 골프의 성적이 좋은 날도 있지만 헛땅을 치며 우울한 성적으로 끝날 때도 있다.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스틱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이 힘들고 짜증난다고 던져버릴 수 없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인들과 어울리며 잔디밭을 걷는 골프의 참 매력을 포기 할 수 없게 된다.



골프 라운딩은 보통 4명이 한 팀으로 플레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서로에게 경쟁심을 유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신사적인 스포츠이다. 지인과 어울려 골프를 치다보면 인생의 점철된 희로애락이 묻어나는 것 같다. 다른 구기 종목과 달리 골프는 룰의 엄격성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드넓은 풀밭에 심판을 두고 감독할 수도 없고 각 개인이 숙지하고 있는 룰과 규정을 자진해서 지키며 플레이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그 만큼 룰의 합리적 자율성을 요구하지만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규정 위반이라는 심각한 유혹에 시달린다. 공이란 예민한 것이어서 풀 속에 주저 않거나 심한 경사에서는 생크(엥땅하게 날아가는 공)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터치 볼’의 유혹을 참지 못한다.

특히 벙커에서는 발자국 속에 공이 박히면 탑볼(공의 윗부분을 맞히는 경우)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을 슬쩍 건드려 옮겨 놓기도 한다. 이럴 때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살피야 하는 비겁함도 감내해야 한다. 그뿐일까! 어떤 홀에서는 오비(경기장을 벗어난 공)에, 뽕샷(뚝 공)에, 생크에, 3퍼터를 치다보면 어림잡아 분명 애보기는 넘을 텐데 얼굴색이 울그락 불그락 몇 타를 쳤는지 기억도 없고, ‘예라, 모르겠다!’ 체면 불구하고 대충 트리플이라고 선언 해 버린다. 그러나 기억할게 있다. 플레이어 중 한 두 명은 남의 타수를 귀신같이 기억해내는 푼푼한 친구가 있기 마련이다. 어정쩡한 상황에서 지적을 받고나면 체면쩍게 수긍해야 하는 수모를 겪을 때도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침착함 보다는 규정 위반이라는 심리적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골프의 교훈에서 배우게 된다. 윤리나 규범에 엄격해야 하는 다윈의 현대사회에서도 피할 수 없는 인간성의 한 측면이 아닌가 싶다.

## 자바 전통 혼례

###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거쳐야 하는 것들



헬렌 하르소노(Heylen Harsana)

Hotel Intercontinental Pondok Indah

500 밀리리터 정도의 물을 1병정도씩 받아와서 꽃으로 장식한 토기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부친인 조코위 대통령, 모친인 이리아나 여사, 큰형인 기브란(Gibran)과 큰 형수 (Selvi), 매형(Bobby), 누나(Kahiyang), 숙모까지 모두 7명이 카에상에게 이 물을 나눠서 끼얹었습니다. 신랑이 너무 오랜 시간 추위에 떨지 않도록 시람안(siraman)에 참여하는 인원은 7명으로 보통 제한합니다.

지난 1월호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카에상(Kaesang)과 신부 에리나(Erina)의 결혼식 이야기를 해 드리면서 신부의 혼례 문화를 소개했어요. 이번에는 1월호에 이어, 자바 전통 혼례 중에서도 신랑의 혼례문화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신부에게도 했던 의례인 ‘시람안(siraman)’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시람안(siraman)은 물을 끼얹는(siram) 의례인데 신랑신부에게 물을 끼얹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겁니다.

카에상(신랑)에게 사용한 물이 특별한데요. 일곱 군데에서 각기 다른 물을 가져와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집에서 각각 가져 온 물, 메카 신전에 있는 ‘잠잠’ 우물물(air zamzam; zamzam well), 족자카르타 술탄왕궁에서 가져 온 물, 파쿠알라만 왕조(Kadipaten Pakualaman) 가족에게서 가져 온 물, 망쿠느가라 왕조(Kadipaten Mangkunegara) 후대에게서 받은 물, 솔로 시에 설립한 셰이크 자예드(Sheikh Zayed) 이슬람사원에서 받은 물을 한 데 모았습니다.

**시람안(siraman)** 의례에 함께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장미, 자스민, 칸틸(kanthil, cempaka putih 류), 일랑일랑(kenanga, cananga odorata) 같은 꽃을 모아 물 안에 담습니다. 꽃을 물에 담아 좋은 향기가 나게끔 하는 거죠.

코노 만차 와르나(konyoh manca warna, 5가지 색으로 만든 목욕제)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흰색으로 된 목욕제인데, 쌀가루와 생강을 섞어 만듭니다. 피부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흰색은 ‘신성함’, 파란색은 ‘고귀함’, 빨간색은 ‘조상’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욕구’, 녹색은 ‘삶’을 뜻합니다.

란다 메랑(landha merang), 산튼 카닐(santen kanil), 바뉴 아슴(banyu asem), 란다 메랑은 샴푸 기능을 하는데 지점토로 만든 것이고, 산탄 카닐은 ‘결죽한 코코넛 우’라는 뜻이에요. 이견 검은 머리를 검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컨디셔너 처럼 쓰기 위해서 신 맛이 나는 아슴(asem)이란 걸 준비합니다.



노랗게 진 코코넛 잎을 묶어서 꽃을 넣어 둔 물 항아리에 넣습니다.

일종의 방석 역할을 하는 클라사 방카(klasa bangka, tikar pandan, 땀단 잎으로 만든 자리)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천(kain mori, kain jarik)과 나뭇잎을 함께 사용합니다.

직조천 ‘카인 루릭(kain lurik)’도 준비하는데, 갈색 바탕에 노란색 실이 있는 천과 흰 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천, 오렌지 색 천으로 고릅니다.

툼퐁(tumpeng, 축하행사에 쓰이는 밥), 바나나(pisang raja salirang, 수는 짝수여야 함), 팔라(pala, 옥두구), 자바 설탕(gula jawa setangkep), 즈낭(jenang werna pitu, 찹쌀가루로 만든 간식으로 7가지 색을 담음), 껌질채로 삶은 땅콩, 수탉(ayam jago) 등 내어 놓는 전통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시람안(siraman) 의례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욕을 마무리할 깨끗한 물을 담은 항아리도 준비합니다.

모든 목욕 절차가 끝나면, “wis pecah pamore (위스 뽀짜 빠모레)”라고 하면서 항아리를 깨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인기 있던 총각 시절은 지나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사람에게 충실한 사랑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이제 신랑이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목욕이 끝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엮는 의식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날까지 자식을 온 힘을 다해 키워내고 가르친 그 세월을 일순간에 보여주는 포즈라고 할까요.

목욕이 끝나면 이제 몸도 마음도 정화된 새 신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신랑은 새 신부의 집에 가서 난뜨릭(nyantrik, 결혼생활의 지침이 되는 조언을 듣는 것)을 합니다.

예전에는 시람안(siraman)이 끝나면 40일 동안 웃어른들로부터 결혼생활에 대해 조언을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1시간으로 간소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카에상의 신부인 에리나(Erina)의 부친께선 일찍이 돌아가셔서, 에리나의 큰 아버지가 대신 카에상에게 결혼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에리나의 큰 아버지는 카에상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첫째, 신에게 충실히 예배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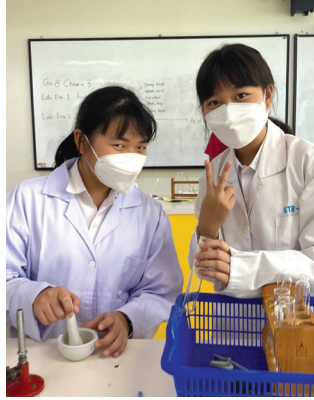
둘째, 장인 장모를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여라.

셋째, 금전적으로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라.

넷째, 종교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번역: 민선희)





## 새로운 결심

-20년 뒤의 나에게-

오제인 (ACS Jakarta, 8학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너는 아마 당당하고 멋진 어른이 되었을 거야. ‘한국의 제인 구달’로 불리며 네가 설립한 ‘한국동물연구소(KARC: Korean Animal Research Center)’에서 대표이사를 겸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거야. 축하해! 네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니까. 물론 부모님에게는 물려주신 뛰어난 두뇌 덕이라고 할 거지만.

내가 벌써 어른이라니 믿기지 않아. 너도 20년 전의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가물가물하지? 지난 주에 8학년 두 번째 학기 시험을 봤어. 네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영어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어. 아, 기억이 안 난다고? 놀랄 준비해. 두구두구두! B에서 A+로 올랐잖아. 그냥 A도 아니고 A 플러스란 말이야. 우리 맨날 B 거나 A만 받았었잖아! 처음으로 A 플러스를 받았어! A 플러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없는 점수 중 하나인데 그걸 받았어!

열심히 노력해 동물학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KARC를 세운 너의 노력을 칭찬해. 우리 엄마는 이럴 때 ‘특급 칭찬’이라는 말을 쓰더라. 그런데 동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워. 생물학에 속하며 동물의 생태를 연구한다는 게 무척 흥미로워. 나중에 한국동물연구소에서 일하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질환을 연구하며 해결책을 찾겠지? 버려진 동물을 위탁해 펫 애니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줘서 이 땅의 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일을 하는 나를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

중2 때 인도네시아의 CGV 극장에서 본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기억나? 여러 개의 다른 차원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멀티버스(Multiverse)’ 이야기 나오는 마블의 SF 영화 말이야. 그 영화를 보고 나서 20년 후의 나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거야.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21세기를 20년 뒤의 세상이 얼마나 발전해 있을지 잘 모르겠어. 만약 네가 사는 시대에 멀티버스 포털을 열 수 있다면, 네가 사는 세상 속으로 나를 며칠만 초대해 주겠니? 열심히 사는 네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고 싶어. 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건 나에게 무척 소중한 꿈이야. 잠잘 때 꾸는 꿈 말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처음 떠올린 꿈인걸. 아, 혹시 이 편지를 읽을 때 멀티버스의 세상이 오지 않았대도 괜찮아. 20년 전의 너를 실망시킬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난 ‘너와 나의 꿈’,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물론 다음 주 로또 당첨번호를 물어보거나 엄마 아빠에게 어떤 주식을 살지 말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을게.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 반대로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수저를 내려놓고 달려가 공부에 매달리기? 이건 좀 어렵겠어. 난 허기가 지면 프랑켄슈타인처럼 괴팍해지거든. 초등학교 6학년 때 체육시간에 기절할 뻔한 거 기억나지? 뜨거운 땀별에서 오래달리기를 하던 날이었어. 힘들어 포기하는 애들을 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며 달리다 다리에 쥐가 나 나뒹굴었잖아. 참기만 하고 나를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운 날이야. 나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균형이 맞게 잘 사용할게.

너 지금 웃고 있지? 투덜대고 어리게만 보았던 20년 전의 네가 ‘꽤 괜찮은 아이였구나’ 생각하면서?

당연하지! 나는 좀 더 작고 좀 더 어린 과거의 너니까. 지금의 내가 있기에 미래의 네가 있듯, 미래의 네가 있어 든든해. 혼자가 아니란 느낌이 나에게 힘을 줘.

난 지금 로알드 달의 <10가지 단편집>을 열심히 분석하며 내년 졸업앨범에 들어갈 우리 반 소개 글을 쓰고 있어. 지금까지 하던 판에 박힌 방식이 아닌 우리 반 아이들의 ‘미래의 꿈’에 대해 쓸 생각이야. 문학 시간에 배웠는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이런 말이 나와. “우린 편안하게 일하기를 더 좋아한다. 하지만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한다.” 생각해 봤는데 나는 잘 닦인 길보다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아드레날린이 솟는 것 같아. 내 DNA는 용감함과 도전으로 이루어졌거든. 지금 키우고 있는 7살짜리 도마뱀 ‘게코’는 아직 살아있니? 보통 도마뱀들은 15년까지 사는데 게코는 기네스북에 오르는 가장 오래 산 도마뱀으로 키우고 싶어. 나의 게코, 15년 뒤의 오제인. 너희들을 무척 아낀다.

Loves, 20년 전의 네가

P.S.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동물을 항상 돕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렴. 길은 초가집 위에서 피어나는 조롱박처럼 재미있게 생겼지만 속은 달빛처럼 은은한 마음이 빛나는 사람이 되렴.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 속에서 빛나는 점 하나, 그게 바로 너일 테니까.



# 라스미

Rasmi

황영은 (주부, 자카르타)

지난호에 이어

“인도네시아, 빠나스(panas), 후잔(hujan).”  
그녀는 손부채를 부치며 숨 넘어갈 듯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아~~더워요. 후잔은 뭐예요?”

라스미는 쉬쉬 후후 하며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허공을 세로로 죽죽 그었다. ‘비’를 뜻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한국, 김치 비빔밥,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소또 아얌”

라스미는 양팔을 날개처럼 푸드득거리며 뭔가를 후루룩 마시는 시늉을 했다.

“아, 닭고기 스프?”

나는 재미있다는 듯 과장되게 손뼉을 쳤다.

45분의 수업의 꼬트머리에서 나는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언급하고 저린 다리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라스미는 다급하고 절박한 눈으로 나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안도가 교차하는 눈빛을 유지한 채 나에게 휴대폰을 쥐여 줬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남편 나빠요. 집이 크다고 했지만 작아요. 잘 살게 해준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어요. 밤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희롱해요. 밖에 못나가게 해요. 답답해요.’

아마도 화려한 삶을 꿈꾸며 지금의 남편을 따라왔을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환상은 미끼에 불과했

다는 것을 깨달았겠지. 남편은 조폭 나부랭이였고 집에서든 밖에서든 건달에 난봉꾼처럼 굴었겠지. 아마도 자신이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그의 조무래기들 앞에 그녀를 얹혀놓고 몸을 만지거나 음담패설을 남발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녀를 둘러싼 암울한 상황, 치욕과 모욕이 안쓰러운 동시에 오로지 화려한 생활을 꿈꾸느라 앞뒤 가리지 않고 한국행을 감행한 것이 너무 경솔하게 느껴져서, 피해자 같은 모습 이면에 감춰진 허영과 풍요를 향한 세속적인 갈망이 감지돼서 나도 모르게 그녀를 벌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부드럽지만 그녀를 타하는 듯한 엄한 표정을 유지한 채 사무적으로 말했다.

“전담 부서에 보고 할게요.”

그녀가 못 알아들을 걸 알면서도 부러 어떠한 배려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뱉듯 말했다. 나는 그저 차가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풍요에 대한 조급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온도가 차가워야 한다고.

이튿날 나는 전담 부서에 라스미의 전반적인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반드시 조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례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어제 그렇게 라스미를 비난했으면서 말은 바를 수 행했다는 이유로 직업적 만족감이 차오르는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날은 원룸텔 현관문 틈새로 은은한 닭고기 냄새가 비어져 나와 복도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었다.

문을 열며 얇은 미소를 띠는 라스미의 얼굴에 피곤과 두려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지친기색이 완전한 얼굴로 뜬금없이

“소또 아얌, 소또 아얌” 하면서 부엌을 가리켰다. 가냘픈 몸으로 분주히 움직이더니 손수 만든 소또 아얌을 얇은빵이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러더니 창백한 얼굴로 변명하듯이 말했다.

“없어. 샬롯, 터메릭, 코리엔더 없어”

아마도 소또 아얌에 감초처럼 들어가는 향신료 같은 것들을 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소또 아얌이라 칭하기에 무리가 있는 그냥 닭고기 국물을 시식하게 됐다. 텅을 재료가 없어 소금을 잔뜩 찧는지 입 안에 짠맛이 오래도록 감돌았다.

“미안해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다 먹은 그릇을 치우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라스미가 지나가는 자리에 좁쌀 만한 빨강고 걸쭉한 액체가 동그란 점을 만들며 일정한 간격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에서 헨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검은 콩알처럼.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저 비극을 외치고 있는 자취들.....

물방울 만한 빨간 점들은 라스미가 서있는 곳 아래로 녹진한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이 피라는 것을 의식하자 숨이 멎는 듯한 타격감이 가슴으로 전해졌다.

“라스미, 거기 밑에..... 뭐예요? 그거 피죠? 피예요, 피!”

라스미는 자신의 발을 고요하게 감싸고 있는 검붉은 피를 바라보다 다급하게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수습이 끝난 뒤 나는 라스미를 앉혀놓고 찬찬히 물어보기로 했다. 이전보다 후회와 두려움이 더 깊어진 눈, 창백한 피부. 라스미의 눈동자는 오묘한 각도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노 베이비, 베이비 노!”

라스미는 손을 칼날처럼 세운 뒤 배에다 대고 뭔가를 긁는 시늉을 했다. 앙상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손짓 하나로 모든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절수술을 받은 것이리라. 남편의 강요가 개입됐으리라.

나는 근처 마트에서 3분 미역국을 여러 개 사서 찬장에 비치해 놓았다.

“여기에 물, 빠나스 물. 오케이?”

라스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라스미, 인도네시아가 갈 거예요. 갈 수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요.

당신 남편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음부터 이런 남자 따라오지 마세요. “

다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감정이 드러난 나의 표정으로 뉘앙스는 어느 정도 전달 되었으리라 믿고 라스미와 헤어졌다.

그 후로 라스미를 만날 수 없었다. 센터로부터 라스미가 컴퓨터에서 보호받다가 본국으로 송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도했고 그게 다였다.

라스미의 일은 한때 나의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으나 고단한 하루하루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었기에 그때의 일은 금방 아득한 것이 되고 말았다.

문득 내가 안전한 하루를 영위하는 것에 안도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자각될 때면 헛헛한 기분에 휩싸이곤 했지만 라스미의 일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일은 없었다. 라스미의 일은 일상의 아주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고 희미하게 느낄 뿐이었다.

이듬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한 NGO단체의 한국어교사 파견 프로그램에 자원했다. 주로 개발도상국들에 편중된 파견 국가들 중 희망근무지로서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건 기피하는 나라에서의 경험이 경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도 모른다는 계산에서였다. 그러한 세속적인 욕구는 내 뒤편에는 강력한 것이어서 그곳이 라스미의 나라라는 희미한 자각은 의식의 표면에 떠오를 새도 없이 소멸되는 듯했다.

그러나 고단한 일상에서 잠시라도 탈피하고자 일을 잠시 쉬는 중이어서 그랬을까?

모처럼 마음속에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받아들이 공간과 여유가 생겼고 잊고있었던 일의 세부들이 느슨해진 마음에 스며들었다.

라스미에 대해 잠시나마 품었던 험한 마음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소도 야망을 꿰어주던 넉넉한 마음에 대한 고마움. 발 밑에 고여있는 피를 보며 잠시 눈동자에 서리던 그 절망과 회한..... 나의 바

람은 ‘열망’으로, 그녀의 것은 ‘욕망’으로 구별 짓던 나의 마음까지도.

자신의 자취를 남기듯 먼 타국에서 피를 흘린 라스미와 나를 떠올리자 마치 그녀와 내가 하나로 이어져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손짓 발짓으로 이국의 언어를 입에 담으며 느끼는 그 낭패감은 한때 그녀의 것이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바닥에 흘린 부스러기들을 그러 모으듯 그녀의 것이었던 것들을 내 것으로 차례로 받아들였다.

병원비를 정산하고 정문을 나서자 대기에 퍼진 열기가 온몸의 벌어진 틈새로 스멀스멀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뜨겁게 달궜진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이 낱알이 느껴질 정도의 대단한 열기였다. 어떤 물리적 형태를 띠고 있어서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은 뜨거운 입자들에 무방비로 노출된 살갗은 불에 달궜진 육질처럼 별장게 익어가고 있었다.

병원 맞은편에 숨 분뚫(sop buntut)이라는 팻말이 시야에 들어왔다. 장염과 식중독에 유의하라는 지인의 말이 문득 상기될 정도로 낡고 허름한 가게였다. 이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에어컨 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열악한 곳이라 바깥과 온도차가 확연히 나진 않았지만 세라믹 타일로 마감한 바닥이 지면으로부터의 열기를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듯 했다.

시커먼 먼지가 두텁게 가라앉은 선풍기 날개가 무겁게 내려앉은 의무감을 어깨에 짊어진 궁핍한 노동자처럼 마지못한 움직임으로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다.

열 켜 남짓한 가게는 크고 작은 균열들이 만들어 낸 불규칙한 패턴들이 초현실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을 빚어내고 있는 회백색 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세월의 흔적들이 얼룩처럼 새겨져 있는 한쪽 벽에는 낙서하듯이 조악하게 휘갈겨 쓴 메뉴들이 붙어있었다.





그 중 하나의 메뉴에 시선이 머물렀다. 소또 아얌. 허름한 가게와 함께 나이를 먹은 듯 깊게 패인 주름마다 땀이 맺힌 백발 노인이 투박한 그릇에 담긴 소또 아얌을 내왔다. 노인이 작은 접시에 라임 두 개를 내오며 손으로 짜는 시늉을 했다.

나는 이해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라임 하나를 국물에 짜 넣었다.

잠시 라스미가 만들어줬던 맛있는 맛의 닭고기 국물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면을 후루룩 먹은 뒤 마치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 넣었다. 그날 라스미가 완성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맛을 온전히 느끼고 있다는 묘한 흥분이 온몸을 감쌌다. 여러 향신료가 조합되었지만 그렇다고 서로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않는 주체적인 맛과 라임의 새콤한 맛이 입안을 알싸하게 감돌았다.

이 맛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면의 감촉과 숙주의 아삭함, 명료한 맛들의 오묘한 결합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고요한 식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정적은 한 이방인이 면과 국물을 먹는 소리와 그에서 비롯된 기묘한 활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식당을 나왔을 때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비밀스런 기대를 품은 습기가 대기를 가득 채운 열기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촘촘히 구획된 공간을 공유해야하는 열기의 버거움이 느껴졌다. 대로변에 외로이 우뚝 서있는 야자나무 꼭대기에는 어둠이 내려앉는 중이었다. 길가를 오가던 사람들은 노련함이 깃든 몸짓으로 각자의 피난처를 찾아 구석구석 숨어들었다. 머나먼 상공, 무수한 물방울들의 집결..... 거대한 천둥소리가 지체 없이 낙하의 시작을 알렸다. 곧이어 굵은 물방울들이 지면을 강타하는 소리가 대기를 가득 메웠다. 어떠한 여유와 지연도 용납하지 않는, 한번에 억수로 쏟아지는 매서운 비였다.

“후잔.....”

나는 라스미가 가르쳐준 ‘비’ 라는 뜻을 품고 있는 그 말을 비가 점령한 대기 속으로 내뿜었다. 분명한 발화로..... 그 거대함을 담기에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왜소한 단어는 낮선 공기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맹렬하게 쏟아지는 비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 초등학교 마지막 추억, JIKS 초등 졸업

2023년 1월 11일 (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는 나래 홀에서 학부모와 주 인도네시아대사관 총영사(이인규), 재단 이사장(박재한), 교민단체 기관장 등의 내빈들을 모시고 6학년 60명의 제44회 졸업식을 가졌다.

1부에서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졸업 축하 오케스트라 및 사물놀이 연주, 인니어 동요, 졸업 축하 영상 등 초등과정의 마지막 하루를 축제 분위기로 장식했다.

2부에서는 학교장이 졸업생 모두에게 졸업장과 상장을 수여하며 축하하였으며, 참석한 기관장 및 내빈들도 상장과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였다.

학교장은 자랑스러운 JIKS인임을 잊지 말고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재학생 대표 5학년 홍서한 학생은 후배를 아끼고 보살폈던 선배들을 본받아 6학년이 되어 후배들을 돌보겠다는 송사를 하였으며 졸업생 대표 6학년 김서연 학생은, 떠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답사를 하였다.

새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은 졸업장과 축하 꽃다발을 든 채 기쁨과 설렘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케스트라 공연



사물놀이 공연



상장수여



모집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인도네시아거주 고등학생

모집기간

2023년 1월 1일~ 3월 15일

제출서류

관심분야 기사 혹은 에세이(A4 한두 장 분량),

학생증사본

제출방법

간단한 프로필과 관련 서류를

haninnewsinni@gmail.com으로 송부

접수 및 문의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0818 711246

# 도전하니 청춘이다

따뜻한 감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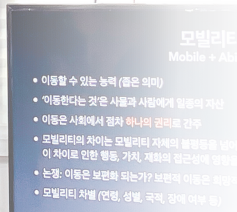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할

**한인뉴스 학생기자 모집**







##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나?



글 : 황다인 학생기자(BSJ11)

지난 1월 7일, 한인니문화연구원 열린 강좌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중인 박준영님의 ‘우리는 왜 이동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한인 교민분들 또한 다양한 이유로 모국을 떠나 이역만리의 자바섬에 정착한 만큼 더욱 관심을 끌수 밖에 없는 주제였다. 강사는 “인류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고 정착한다”고 설명하며 해당 강좌를 통해 이동과 정착의 기원을 밝히고 아울러 이러한 실천에 대한 다소의 불편한 시선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강사는 인간의 이주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이론으로 ‘배출 - 흡입 이론’과 ‘초국가주의’를 언급하였다. 먼저, ‘배출-흡입 이론’은 이주에 대한 다양한 개별사례에 ‘양적’ 분석을 통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인구증가, 낮은 생활수준, 경제적 기회의 부족, 정치적 억압 등 한 지역에서의 배출요인이 다른 지역에서는 노동수요, 경제적 기회, 토지의 가용성, 정치적 자유 등 흡입요인으로 작용하여 인구 이동을 발생시킨다는 이론이다. 다만 해당이론은 이동과 정착의 이유를 카테고리화하는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이주를 인구통계학 개념으로 접근한 만큼 단선적 이동만을 설명해 줄 뿐 인간의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초국가주의’라고 한다. ‘초국가주의’는 모국과 거주국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핵심적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 즉 이주자들이 정착국에서의 통합을 이루어 가면서도 기원국

과의 연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주자의 행위 주체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으며 문화 계승자(전달자, 협상자)로서의 역할 또한 부각된다고 한다. 다시말해 모국과 거주국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상황이 아닌 기원국과 정착국의 교집합으로서 기원국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 양국의 문화적,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초국가주의적 현상은 민족 공동 생활, 경제 공간인 앙클레이브(Enclave)를 꼽을 수 있는데 강사는 여러 도시의 차이타운, 코리아타운, 리틀 도쿄 등을 그 예로 들었으며, 그 순간 싱가포르학교 재학당시 맞은 설날 행사에서 각자 모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대표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모국의 문화를 알리는 이벤트를 한 기억이 소환되었다.

한편 강사는 “인간의 이동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이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기회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즉, 더 빨리, 더 자주,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즉 모빌리티 (Mobility)는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본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는 일본에서 우동을 먹기위해 당일치기 해외여행을 하고, 쇼핑을 위해 유럽을 또 뮤지컬 관람을 위해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싣지만 이 상황이 모두에게 해당될 수 없는 것 처럼 말이다. 아울러 강의는 ‘이주이론’과 더불어 현재 일어나는 이주 논란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강사는 칼린네의 우생학을 언급하며 생물은 우열을 가려 순위를 나누고 사람들은 다름과 낮섬을 공포와 혐오로 받

아 드리는 습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예를들어 인간  
간의 이동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때 후진국  
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비교적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또한  
아직도 난민 수용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인 의견이  
월등히 높은 국가임을 상기시키며 각계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난민을  
수용해야 할 지 토론하는 시간을 끝으로 강의는

마무리 되었다. 우선, 금번 열린 강좌가 (단지 아  
버지의 직장문제로 우연히 인도네시아에 이주한)  
고등학생의 시각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렇지만 이번 강연을 계기로 나 역시 한국에서 태  
어나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이주민중 한명으로서  
‘어쩌다’ 가 아닌 ‘어쩌면 필연적’ 일 수 있는  
‘나만의 이주이야기’를 잘 써내려 가야겠다는  
‘다짐과 환기’의 기회를 갖는 유익한 강좌였다.

『식물일기』

권영경 작가 열린강좌 북토크



적당히 거리를 둔 만큼 자라는  
식물과 아이 키우기

매일매일 달라지는 아이와  
식물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의 진심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일시

2023년 2월 4일(토) 10:00~12:00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 (한인회 문화회관 1층)  
Jl. Gatot Subroto Kav. 58

문의

0812 9500 9015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제 78회 열린강좌

KOREAN ASSOCIATION OF LOMBOK

**K-FRIENDS PROJECT**

PENYERAHAN BANTUAN SEMBAKO KEPADA WARGA DESA SURANG MAMPU  
DESA SAMBING BANGKOL KEC. GANGGARA UTARA  
KABUPATEN BANGK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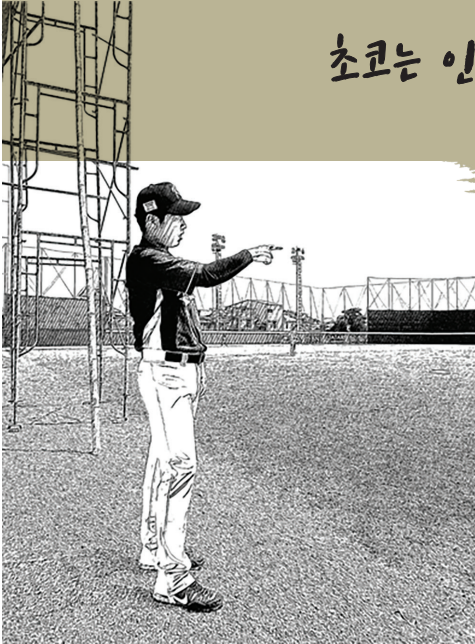
KOLITA  
KOREAN ORGANIZATION FOR LOMBAKIA TRADING AND TOURISM AUTHORITY

TELOH  
KOREAN TRADING AND TOURISM AUTHORITY

례북한인회 사무국에서는 향후 이어질 2차 사업  
 부터는 사전 전체 공지를 통해 회원들의 후원 신  
 청을 받을 예정이고 외부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단체들과 협조해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코는 인형인가? 강아지인가?



은장우(아빠)



은장우 아빠 출장가던 날의 투숙견 일지를 공개합니다.

**초코** / 토이푸들 / 남 / 2022. 1월생

#은장우아빠바라기

#초코팔자가상팔자

#주견전도

#취미는최고급입욕제거품목욕

#초코의일기

### <투숙견 일지 by 삼월공작소>

“수업 최고급 입욕제”를 사용한 스파를 몇번 해줬더니 지 혼자 욕조 들어가 기다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저희는 철저한 사전예약제입니다)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웃고있죠? 투숙견이 아주 만족하는 표정입니다.

글로벌 견으로 거듭나기 위해 컴퓨터수업과 Geography(세계지리) 수업을 그것도 영어로 실시하였으나 하품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도 수업료는 청구됩니다)



## 분쟁 해결 방법(6)

(전호에서 계속)

### 10.6. 중재처리 절차

중재는 BANI의 중재 처리 절차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자와 피청구자 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10.7. 중재부의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10.7.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10.7.2.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청구자와 피청구자가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 지정할 수 있으며, BANI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재부장이 된다.

10.7.3. 청구자나 피청구자가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I에서 직권으로 청구자나 피청구자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자측에서 중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데, 이는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니, 중재청구를 당하면, 피청구자는 BANI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싸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만,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대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일반법정에서 싸움보다 더 신중하게 변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원에서 패소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다시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있는데 비해,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중재 상대 당사자가 형법을 어긴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제도적으로 더 이상 법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BANI의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가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10.7.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도네시아의 명망 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교수,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기술전문가, 업종협회 회장등 기타전문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전문가 등이 있다.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 명단을 검토해보고 청구자나 피청구자는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10.8. BANI의 중재비

10.8.1. BANI의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번호	청구액(Rp)	중재비
1.	1,000,000,000 이하	: 10.0 %
2.	1,000,000,000	: 10.0 %
3.	2,500,000,000	: 9.0 %
4.	5,000,000,000	: 8.0 %
5.	7,500,000,000	: 7.0 %
6.	10,000,000,000	: 6.0 %
7.	15,000,000,000	: 5.0 %
8.	25,000,000,000	: 4.0 %
9.	50,000,000,000	: 3.0 %
10.	100,000,000,000	: 2.0 %
11.	250,000,000,000	: 1.5 %
12.	500,000,000,000	: 1.0 %
13.	1,000,000,000,000	: 0.8 %
14.	2,000,000,000,000	: 0.6 %
15.	2,000,000,000,000 이상	: 0.6 %

10.8.2. 상기 공식 중재비 중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추가 부담)

#### 10.8.2.1. 전문가 증인비

전문가 증인 채택은 중재 당사자가 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이 초청할 수도 있다. 중재 당사자가 신청한 전문가 증인이던 중재부에서 요청한 전문가 증인이던 전문가 증언에 관련된 경비는 중재 당사자가 부담한다.

10.8.2.2. 해외거주 중재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외거주 중재위원의 출입국 교통비, 국내 숙

박비 및 추가비용(\*필요시)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10.8.2.3. BANI 중재실 밖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 장소비를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10.8.2.4. BANI 판결문 법원등록비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10.8.2.5. 당사자의 요청 시 BANI 의견서 제공비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10.8.3. 상술한 공식 중재비는 테이블에서 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면 청구자나 피청구자의 부담이 더 크다고 말하기 힘든 현저 실정이다.

#### 10.8.4. 중재비 선납 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처리가 시작된다. 처음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록 통지가 가며, 피청구자가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자가 중재비 50%를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피청구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사항이다.

#### 10.9. 맞춤형 청구

피청구자는 청구자에 대하여 맞춤형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춤형 청구 시한은 중재 첫 심리 전까지이다.

#### 10.10. 쉼식 중재 판결

피청구자가 중재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쉼식판결을 내릴 수 있다. 쉼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자는 판결내용 피통지일로부터 14일내에 쉼식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쉼식판결문의 내용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자가 BANI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국제간이니가 괜찮겠지 인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조처 하겠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며,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뉴욕협약에 근거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도네시아 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법원도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대한민국의 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중재원의 판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그냥 놔두지 말고 중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 절차가 민사소송법대로 진행됨으로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며 대응함이 바람직하다.

### 11. 결론

분쟁 해결 방법을 당사자 간 직접 협상으로 할 것인지, 변호사를 통해 협상으로 할 것인지,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인지, 중재를 청구할 것인지, 파산선고를 청구할 것인지, 형사고소를 할 것인지는, 분쟁의 본질, 상대자의 의지 및 상대자의 지불능력 등을 검토해보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현지 제도를 통해 강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채권 존재 입증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청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의 범죄 혐의 증거물이 확실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2022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2.12.28 ~ 2023.1.30.

1	부회장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5,000	
2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3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4	이 사	김옥준	BSI GROUP	1,000	2022
5	이 사	김종성	PT. LAW FIRM INDOYANG & PARTNERS	1,000	2022
6	이 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7	이 사	이지현	PT. ZIMMOAH MARINE TRANS	1,000	2022
8	이 사	장윤하	PT. HARINDO	1,000	
8	고문	이호덕	PT. ROYAL SUMATRA GROUP	5,000	

## 2023 개인희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번호	성 명	금액(IDR)
1	김종훈	300,000
2	이정휴	300,000
3	박주상	300,000
4	최석일	300,000
5	박성호	300,000
6	김옥준	300,000
7	채만용	300,000
8	김윤경	300,000
9	안진호	300,000

번호	성 명	금액(IDR)
10	김영율	300,000
11	조영재	300,000
12	김창근	300,000
13	김대근	300,000
14	서정현	300,000
15	석웅치	300,000
16	김희순	300,000
17	이지선	500,000

DYNAMIC  
KOREA

##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명 : P.A.K. Law Firm (김민수 변호사)

○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 · 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자문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최서혜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 대표전화: (021) 2967-2555

○ 이메일: shchoi22@mofa.go.kr /끝/

##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관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신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	-----	------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성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글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봉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글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외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글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츠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다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피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고포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쯔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뽕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woori**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림과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뎀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골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 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용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레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레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가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쑤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쑤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썬드라아트스쿨(리쑤찌까랑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조수화중국어(방문수업) 0877 7551 5156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클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꿀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 종교 단체

### <기독교>

교민교회	5576 7508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에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문회

###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웅)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재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성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 · 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2023년 K-Move 스쿨 인도네시아 해외취업 연수과정 열린강좌

일	교시	프로그램	강사
1월20일 금요일	10:00-12:00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문화 -Pancasila와 대통령	사공경 (한인문화연구원장)
	13:30-15:30	인도네시아 속 한국 진출 현황 -개괄적 소개	안선근 (UIN, UIA 교수)
1월27일 금요일	10:00-12:00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문화 -노무, 인사 분야	방치영 (노무사, 회계사)
	13:30-15:30	인도네시아 속 한국 진출 현황 -봉제 분야	안창섭 (봉제협회장)
2월3일 금요일	10:00-12:00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문화 -경영사무 분야	최재광 (KORINDO 임직원)
	13:30-15:30	인도네시아 속 한국 진출 현황 -전자 분야	장일환 (LG 임직원)
2월10일 금요일	10:00-12:00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문화 -영업판매 분야	김재환 (한세기업 임직원)
	13:30-15:30	인도네시아 속 한국 진출 현황 -유통 분야	최재혁 (무궁화 임직원)
2월16일 목요일	10:00-12:00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문화 -서비스 분야	전병준 (IRUUM 푸드셰프)
	13:30-15:30	인도네시아 속 한국 진출 현황 -온라인 사업 분야	김경현 (PT. Merdis International 대표)
2월17일 금요일	10:00-12:00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문화 -생산관리 분야	정윤희 (전PT. Cocoa Jewelry 대표)
	13:30-15:30	인도네시아 속 한국 진출 현황 -여성 진출 분야	허영순 (KOWIN 회장)
2월21일 화요일	10:00-12:00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인니취업 면접 방법	이영미 (BeFM 통신원)
2월22일 수요일	10:00-12:00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면접 연습	이영미 (콘텐츠프로바이더)
2월23일 목요일	10:00-12:00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인사담당 임직원 초빙 모의면접	황준규 (신한은행 본부장)
	13:30-15:30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인사담당 임직원 초빙 모의면접	우병기 (KORINDO 임직원)
2월24일 금요일	10:00-12:00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문화 -Batik 이야기	사공경 (한인문화연구원장)
	13:30-15:30	인도네시아 속 한국 진출 현황 -미래 전망 및 Q&A	안선근 (UIN, UIA 교수)

분야별 초빙 전문가로 구성된 강의 일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현재 2022. 12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0812-1960-308 ]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 0822 1996 3355 ]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 022) 200-2154 ]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4-5469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 031) 568-8690 ]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 024) 7648-2020 ]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박 병 건	0812-2685-1121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SBS

DONGHAE

SIMS

SRT

SRT

ABM

KIDECO

# ST International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Yeong Yang  
Wind Power